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44032-200000181591

지구경영학과석사학위논문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사회복지적 효과성 제고: "자기성찰형 지출관리" 적용에 관한 사례연구

2019년 2월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지구경영학과

오 도 선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사회복지적 효과성 제고: "자기성찰형 지출관리" 적용에 관한 사례연구

지도교수 김 광 린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1월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지구경영학과

오 도 선

오 도 선 의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8년 12월

심사위원장 심 곤 영 인

심 사 위 원 서 호 찬 인

심 사 위 원 김 광 린 인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국문초록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사회복지적 효과성 제고: “자기성찰형 지출관리” 적용에 관한 사례연구

21세기 진입 직전까지 직업과 근로소득은 빈곤탈출의 사다리로서 자유 · 시장경제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해왔으나 세계적으로 자본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빨리 증가함에 따라 일하는 자들의 상대적 소득과 자산은 점차로 축소되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에 참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개인과 가정의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소득은 있으나 경제적 안정성과 미래에 대한 여유가 부족한 저소득 근로자에게 본인 저축 금액에 매칭 금액을 더해서 단기간에 자산을 증가시켜주는 금융기반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서울시 통장사업이후 다양하게 실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 자기성찰형 지출관리 프로그램은 통장사업 참여자들이 근로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3년 후 형성된 자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돈에 대한 자기결정력을 향상하는데 개인적이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음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이면서 온라인 지출관리체험 프로그램인 “그뤠윗(great)한 청년의 영수증”(2017년 10월)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59명을 대상으로 선정했고, 4주간의 지출파악하기 체험에서 표현된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연구의 원자료로 수집하였다. 질적 연구방법 중 근거이론 접근방법을 선택하여 분석하였고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원자료에 대해 개방코딩 작업을 실시한 결과, 영수증 바라보기, 지출파악, 지출통제, 소비패턴, 자기성찰 등 총 16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16개의 범주는 연구 참여자들의 지출에 대한 부정적 또는 긍정적이거나, 반성적 또는 계획적이거나 희망적인 것 등 다양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축코딩 작업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지출파악” 이라는 범주를 중심현상으로 설정할 수 있었고, 연

구 참여자들은 “지출파악” 과정에서 무시단계, 받아들임 단계, 실행 단계, 찾음 단계의 4 단계를 경험했다. 선택코딩 작업의 분석결과, 핵심범주는 “자기성찰형 지출관리를 통해 진정한 기쁨이 있는 소비지출을 알게 되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체계적인 4주간의 지출파악하기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동안 첫째, 지출일지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자기개념을 명료화하는 자기성찰이 있었고 둘째, 지출평가를 통해 ‘지출하는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지출관리뿐 아니라 일상생활 전체에 대한 자신감으로 확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참여자들의 이러한 소비자자신감은 계획 있는 지출관리와 향후 성공적인 자산관리의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었고, 이러한 복지제도와 프로그램에 감사하는 마음속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라는 사회복지적 의미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을 느껴볼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여러 기관에서 실행하고 있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금전적 지원과 함께 후속관리방법에 대한 다양한 경험적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수혜자들이 자산관리에서 부딪치게 될 여러 문제 유형과 해결을 위한 다양한 행동을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안정된 가정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적이고 정책적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유의미한 사회복지적 시사점을 줄 것이다.

주제어 : 자기성찰형 지출관리, 자기개념 명료성, 소비자 자신감, 근거이론

목 차

국문초록 ····· i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목적 ····· 4

Ⅱ. 이론적 배경 ····· 5

1. 소비 성향과 소비 행태 ····· 5

1) 소비 성향 ····· 5

2) 다양한 소비 행태 ····· 6

2. 자기성찰, 자기개념 명료화, 소비자 자신감 ····· 7

1) 자기성찰 ····· 7

2) 자기개념 명료화 ····· 9

3) 소비자 자신감 ····· 10

3. 금융사회복지 ····· 11

1) 금융사회복지와 재무적 안녕 ····· 11

2) 자산의 복지효과와 자산빈곤의 문제 ····· 13

4. 근거이론 ····· 14

1) 근거이론의 특징 ····· 14

2) 근거이론 연구방법 절차 ····· 14

3) 이론적 민감성 ····· 17

Ⅲ. 연구방법 ····· 17

1. 연구관계자 ····· 17

2. 연구절차 ····· 19
1) 연구진행과정 모형 ····· 19
2) 자료수집방법 ····· 20
3) 자료분석방법 ····· 21
Ⅳ. 연구결과 ····· 22
1. 개방코딩 ····· 22
1) 지출파악하기 체험에 대한 해석적 기술 ····· 22
2) 근거자료의 범주화 ····· 39
2. 축코딩 ····· 46
1) 패러다임 범주화 ····· 46
2) 패러다임 모형 ····· 49
3) 과정분석 ····· 54
3. 선택코딩 ····· 57
1) 핵심범주 ····· 57
2) 이야기 윤곽 ····· 58
4. 소결론 ····· 59
Ⅴ. 논의 및 결론 ····· 62
1. 논의 ····· 62
1) 개인적인 측면 ····· 62
2) 조직적 · 정책적인 측면 ····· 65
2. 결론 및 시사점 ····· 67
1) 결론 ····· 67
2) 시사점 및 한계 ····· 69

참고문헌 ····· 72

ABSTRACT **77**

표 목 차

<표 Ⅱ-1> 재무적 안녕의 4가지요소 ····· 12
<표 Ⅲ-1> 연구 동료의 개인적 배경 ····· 19
<표 Ⅲ-2> 자기성찰형 지출관리 체험프로그램 ····· 21
<표 Ⅲ-3> 근거이론 연구의 자료 분석 과정 ····· 22
<표 Ⅳ-1> 개방코딩: 자료의 범주목록 ····· 40
<표 Ⅳ-2> 근거이론 패러다임 범주화 ····· 48
<표 Ⅳ-3> 인과적 조건(범주의 속성과 차원) ····· 50
<표 Ⅳ-4> 맥락적 조건(범주의 속성과 차원) ····· 51
<표 Ⅳ-5> 중심현상(범주의 속성과 차원) ····· 51
<표 Ⅳ-6> 중재적 조건(범주의 속성과 차원) ····· 52
<표 Ⅳ-7> 작용/상호작용 조건(범주의 속성과 차원) ····· 53
<표 Ⅳ-8> 결과(범주의 속성과 차원) ····· 54

그림목차

<그림 Ⅱ-1>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 ····· 16
<그림 Ⅲ-1> 연구진행과정 모형 ····· 20
<그림 Ⅳ-1> 지출파악하기 체험에 대한 과정분석 모형 ····· 49
<그림 Ⅳ-2> 지출파악하기 실행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 55
<그림 Ⅳ-3> 지출파악하기 4주 주차별 구성 ····· 60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1세기 진입 직전까지 직업과 근로소득은 빈곤탈출의 사다리로서 자유·시장경제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해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자본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빨리 증가함에 따라 일하는 자들의 상대적 소득과 자산은 점차로 축소되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이 Thomas Piketty[1]등 여러 연구들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에 참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개인과 가정의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3년 카드대란을 거치면서 저소득층에 머물고 있는 근로빈곤층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2002년의 경우 전체 신용불량자 372만 명 중 신용카드 불량자가 239만 명으로 6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였다.[2] 이후 계속되는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주거비용의 증가도 저소득 근로층의 상대적 빈곤화의 가속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현재까지 여전히 유효하게 실행되는 주요 정책 두 가지 흐름은 일자리를 통한 소득증가와 금융서비스[3]적인 측면이다. 일자리에 대한 사회정책의 흐름은 최저 근로소득자들을 위한 지역자활센터[4]나 각종 일자리센터의 유지 확장에서부터 최저임금 인상 등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으로 맥을 연결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금융소외계층에게 창업 및 운영자금을 대출해주는 미소금융[5]은 단기간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

---

1) Thomas Piketty 저, 유영 역, 『불평등 경제』(서울: 마로니에북스, 2014).
2) "2002년 가계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 https://namu.wiki/w
3) 대출기회를 확대해주거나 직접적으로 자산을 지원하는 서비스
4) 지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초기상담부터 시작하여 기본교육, 근로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술 교육의 시행 및 일거리의 제공을 통한 훈련을 시행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함으로서 참여주민들의 자활을 돕고 있다. 2017년 현재 249개소의 지역자활센터가 있다.
5) 제도권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없는 저소득자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국에서 실시하는 소액대출사업을 이르는 말.

여 새로운 기회요소가 된 것은 사실이고 적은 금액의 대출지원으로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자의 역량에 따른 문제이나 대출금액의 적정성과 상환기간도 문제소지가 있었음을 본 연구자가 2010년 이후 미소금융 이용자중 장기연체자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미소금융이용자들의 대부분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오히려 부채가 가중되는 상황을 목격할 수 있었다. 미소금융과 거의 동시적으로 2009년 서울시에서 시작한 '희망플러스통장'[6]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저축조건으로 저축금액을 지원하는 새로운 형식의 저소득층 지원 사업이 확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은 2007년 요보호아동(시설입소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아동발달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s, 디딤 씨앗통장)로 시작되었다(권지성, 2010).[7] 이어 2009년에 서울시의 '희망플러스통장' 과 '꿈나래통장' 과 2010년 보건복지부가 '희망키움통장' 을 실행하면서 전국화 되었다. 이러한 사업의 목적은 자산형성의 여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 주거 및 교육자금과 창업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안정화하는데 있다(이경란, 2016).[8] Sherraden(1991)[9]은 빈곤층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가족의 안정성 개선,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다양한 여러 유형의 자산축적으로 창업이나 특별한 사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갑작스러운 위험에 대한 심리적 · 물질적 기반을 제공하며, 정치참여 등 사회적인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빈곤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돕는 지지기반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미국의 자산형성사업인 IDA(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는 소득의 증가, 금융자산 증가 같은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관계 및 자존감 등의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성과가 있다고 하였다(Sherraden, 2008).[10] 한국의 경우에도 자

---

6) 2009년 도입된 희망플러스통장은 저소득층을 가입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가 일정액을 저금하면 서울시와 민간이 반반씩 부담해 그 액수만큼 적립해 주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이뤄진다. 저축 기간은 적립 개시일로부터 3년이다.

7) 권지성, "저소득층 자산형성프로그램에 대한 질적평가 연구", 『한국사회복지학』(2010), 62(3):193-218.

8) 이경란, "저소득층 자산형성사업이 참여자의 금융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9) Sherraden, M. 1991, *Asset and the Poor: A New American Welfare Policy*, Armonk, NY: ME Sharpe Inc.

산형성사업의 성과를 측정한 연구들을 보면 소득 및 금융자산과 주택과 같은 자산의 증가를 통해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관계 및 자존감 등의 심리정서영역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이순성, 2014).[11]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한정된 기간 동안 저축행위와 매칭금액의 지원으로 일정한 자산의 증가를 소기의 목적으로 하며, 궁극적으로는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참가자가 지속적으로 저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 금융역량을 향상하는 것이 개인과 사회적으로 필요한 근거이다(이경란, 2016).[12] 그러나 현재 실행되는 대부분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는 참여자의 저축에 따른 매칭지원을 중심으로 할뿐, 통장사업기간에 통장가입자들의 금융역량을 향상할 후속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거의 실행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아니 오히려 의무적이라는 조건으로 참여자의 불만을 야기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사업기획자와 선행연구들에서 자산형성사업의 파급효과로써 지속적인 자산관리역량과 자산계획수립의 필요성을 당위론적인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선행연구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참여자들에게 물질적인 변화의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자립에 대한 심리적 기대감의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적절한 프로그램이 제시된다면 참여자의 금융태도변화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를 고취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목적인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13]사업의 후속관리로 실행된 “자기성찰형 지출관리”중 1단계인 지출파악하기 온라인체험에 대한 사례분석이다. 지출파악하기를 통해 체득한 ‘자기개념 명료성’과 ‘소비자 자신감’이 향후 3년 동안 1,000만원을 성공적으로 적립하기 위한 근로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다음으로 3년 후

10) Sherraden, M. 2008, “IDAs and asset-building policy: lessons and directions”. *Working paper*. 08-12.
11) 이순성,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 성과분석 연구』(서울: 서울시 복지재단, 2014).
12) 이경란(2016), 앞의 논문.
13) https://account.jobaba.net/main/main.do

형성된 자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돈에 대한 자기결정역량에 도움이 되는 요소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자기성찰형 지출관리가 참여자의 금융 행동의 변화와 효율적인 자산관리기술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2. 연구목적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소득층이 근로와 저축을 통해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자산형성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경기도에서 저소득 근로청년들을 대상으로 실행하고 있는 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 자기성찰형 지출관리가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를 유지하고 고취하는데 필요한 자신감과 심리적 여유, 그리고 돈관리역량 향상에 미치는 관계를 알아보려고 한다. 자기성찰형 지출관리가 실행됨으로 인해서 참여자들의 금융태도와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미치고, 참여자들은 자기개념을 명료화하고 지출과 자산관리계획에 대한 실용기술을 습득함으로써 단편적인 자산형성 효과뿐만 아니라 자기주도적인 돈관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청년들의 지출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참여양태를 파악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다양한 사회복지실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자기성찰형 지출관리는 참여자들의 자기개념 명료화와 지출관리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자기성찰형 지출관리는 참여자들의 자기주도적인 돈관리역량이 강화됨으로서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사회복지적 성과를 촉진시킬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소비 성향과 소비 행태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로보트 보콕, 2003)[14].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소비한다. 호모 콘수무스(Homo Consumus)라는 소비하는 인간을 뜻하는 신조어가 나올 만큼 소비는 나의 존재방식인 동시에 다른 사람과 나를 차별화시켜주는 수단이다. 하지만 지금껏 소비는 욕망의 쾌락만을 위한 천박한 물질주의의 산물로 여겨졌고, 사치나 방탕과 연결되는 부정적인 의미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었고, 철저히 통제되어야할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대부분의 인류역사에서 소비의 필요와 소비자의 욕구에 대한 무관심은 어쩌면 당연했고, 오로지 중요한 과제는 생산성향상이었다. 물질적으로 충분히 풍요로운 현재에도 한국전쟁이라는 절대적인 결핍을 경험한 기성세대로부터의 “저축은 미덕이고 소비는 나쁜 것이다.”라는 전통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소비가 내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이라는 새로운 소비세대들의 소비행위가 ‘일과 개인생활 그리고 개인과 가족의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의식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사회운영방식과 제도변화에도 주도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1) 소비 성향

소비 성향은 소비자가 소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향으로서 김민정(2001)[15]은 소비과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는 소비자 개개인의 소비행동의 특성을 결정짓는 요인이고, 김동호(1996)[16]는 구매동기 및 사용방

14) 로버트 보콕 저, 양건열 역, 『소비 :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서울: 시공사, 2003).
15) 김민정, “청소년의 상징적 소비성향과 충동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16) 김동호, “소비성향 측정도구의 개발연구: 서울시 여성의 소비성향 측정과 분석”,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1996).

법 등 전반적인 소비활동을 지배하는 소비자의 행동과 심리의 일정한 경향이라고 정의하였다. Holt(1995)[17]는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 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소비성향을 정의하였는데 이는 소비과정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매한 상품의 사용느낌과 생각도 포함된 개념으로 보았다. 소비 성향이란 소비행위 즉 구매과정과 상품사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개인의 소비심리적 경향으로 다양한 소비자의 성격만큼이나 각양각색의 유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다양한 소비 행태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 소비문화는 '욜로'이다. You Only Live Once. 현재를 즐기며, 자기계발이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취미생활에 아낌없이 돈을 쓰는 것이 특징이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 '소확행' 또한 새로운 소비세대의 특징이다. 막연한 성공을 위해 현실을 희생하기보다 지금 아주 작게라도 확실한 행복을 찾겠다는 의지가 담긴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직장인으로서 소비문화트렌드는 '워라밸'이다. '일(work)의 워크, 삶(life)의 라이프, 균형(balance)의 밸런스'의 줄임말로 '일과 개인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특히 거창한 성공보다 일상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으려는 젊은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다. 취업, 결혼, 육아 등에 대한 청년의 문제가 중심으로 부각되면서 한국에서는 최근 들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트렌드 코리아 2018》[18] 은 특별하게 '워라밸 세대'를 명명했는데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생부터 1994년생까지 세대를 말하며, 워라밸 세대의 핵심 가치는 '나 자신', '여가', '성장'이다. 개인의 삶을 조직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 때문에 자기 삶을 희생하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돈을 많이 버는 것 보다는 스트레스 없는 삶을 꿈꾸며 만족한 삶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찾는다. 하지만 사회구조로부터 유의미한 자원의

17) Holt. D. B.(1995). How Consumer Consume: A Typology of Consumption Practic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8) 김난도 외 7인, 『트렌드 코리아 2018』(서울: 미래의 창, 2017).

지원이 없는 상황이라면 워라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철저히 개인의 의지와 역량에 달려있다. 이전 세대에 비해 적어진 금전이 워라밸세대가 처한 서글픈 현실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나 자신과 여가와 개인의 성장이라는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합리적인 자원배분과 소비계획이 선행되어야함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새로운 소비세대들은 탕진잼, 시발비용, 멍청비용, 쓸쓸비용 등과 같은 소비신조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소소하게 낭비하며 느끼는 재미를 표현하는 소비인 딸기잼보다 맛있는 '탕진잼', 스트레스를 받아 홧김에 소비하는 '시발비용', 본인의 실수로 멍청하게 낭비한 '멍청비용', 쓸쓸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먹고 마시고 지르는 '쓸쓸비용' 등도 SNS상에서 자주 회자되는 소비관련 용어이다. 이처럼 기존에 없었던 소비용어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새로운 소비세대의 특징이다. 소비행위에 대한 기존의 표현은 필요-불필요, 만족-불만족, 좋음-싫음, 즐거움-짜증 등 단순하게 구분하는 것으로 충분했다면 새로운 소비세대들에게 이런 표현방식은 자신들의 소비행위를 표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고 재미도 없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새로운 단어나 용어의 사용이 사물과 행위를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새로운 소비세대들은 자신들의 소비행위에 대해 원인이나 이유 그리고 향후 소비행위 계획에 대해 이성적이고 감성적이고 물질적이고 경험적인 소비 등 합리적인 비교검토가 활발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2. 자기성찰, 자기개념 명료화, 소비자 자신감

1) 자기성찰

자기성찰(self-reflection)은 성찰의 주체인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때 '자기'는 한 개인이 자신을 종합적 전체로서 인식하여 표현한 것이며(송인섭, 1989)[19], 자신의 내외적 상태가 서로 영향을 주어 형성된 자

19) 송인섭, 『인간의 자아개념 탐구』(서울: 학지사, 1989).

기에 대한 깨우침이자(김정규, 1998)[20] 자신에 대한 능력, 신념, 견해, 가치 등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성찰(省察)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핌'의 뜻이며, 일상생활을 하면서 생각과 감정, 특히 감정 상태의 변화를 겪으며 변화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으로 정의된다(조수철, 2000).[21] 성찰은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또는 과거에 일어났던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분석하고 생각함으로써 문제 상황을 이해하게 되어, 더 나은 전문적인 지식과 결론을 얻게 되고 미래 행위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과정이다. 이것은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거나 불편하거나 혼란스러운 상황, 자기와 불일치되는 상황, 딜레마 상황, 타인과 관계에서 의미 있게 변하는 시간이 발생되었을 때 일어난다(Dewey, 1938).[22] Dewey는 성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찰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찰하는 습관을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성찰이 특정한 기술이라기보다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을 통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과정으로서의 성찰은 지식을 획득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 지식과 실천이 역동적인 대화를 통해 지속되는 사고 과정으로 새로운 지식 혹은 새로운 경험 요소가 투입될 때 심화되고 발전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진지한 자기성찰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하며, 또 다른 유의미한 경험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배경이 되어준다는 것이다. 즉, 성찰은 세계와의 경험에 대한, 사전 경험을 배경으로 한, 그리고 학습자의 삶의 과정에서의 성찰이기 때문에 성찰은 학습자 중심적이고, 관계적이고, 연속적인 특징을 가진다고 보았으며, 학습자가 자기성찰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자기성찰의 과정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보면 자기성찰은 문제에 대한 자각에서 출발하여 그 문제에 대한 주의집중, 분석과

---

20) 김정규, "자기심리학과 게슈탈트 심리치료의 대화", 『한국심리학회지:임상』(1998), 17(1), 17-38.

21) 조수철, "대인관계에 있어서 성찰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2000), 11(2), 179-185.

22) Dewey, J.(1938). Experience and Education, *The Later Works*. Vol.13. *Carbondale and Edwardsvil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같은 탐색의 과정을 거쳐 이해, 변화, 성장을 겪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인지적 사고 과정으로서 경험 및 내적 상태에 대한 자각, 탐색 및 분석, 이해 및 변화 등이라고 할 수 있다(원수라, 2015).[23]

2) 자기개념 명료화

김지윤 · 이동귀(2013)[24] 는 “자기개념이란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인 구조로,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지각, 인식 및 평가를 반영하는 인지적 관념”으로 정의한다. 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와 같이 자기의 역할이나 가치, 전반적인 자기에 대한 평가 등 을 의미하며, 자존감이나 자기수용 등의 개념을 예로 들 수 있다. 단순히 자기의 개념이 긍정적인지 혹은 부정적인지에 대한 내용적 측면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을 넘어 최근에는 자기개념의 구조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노고은, 2015)[25]. 이러한 자기개념의 구조 중 하나가 바로 ‘자기개념 명료성’ 이다. 자기개념 명료성은 자기개념의 인지적 측면으로, 자기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고 확신이 있으며, 내적으로 일치되고 시간적으로 안정된 정도를 말하며 자기 관련 피드백에 반응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는 자기의 구조적 요인이다(Campbell et al., 2003).[26] 자기개념 명료성이 높은 사람은 자기와 관련된 부정적인 정보에 덜 몰입하고, 사회적 상황에서 자아에 대한 위협도 적게 느낀다. 또한 높은 자기개념 명료성은 높은 자존감, 낮은 신경질, 낮은 부정적 정서, 낮은 우울 및 불안과 관련이 있다(Campbell et al., 1996).[27] 반면 자기개념 명료성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

23) 원수라, “중학생의 자기성찰 태도 향상을 위한 뇌교육 실행연구”,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24) 김지윤, 이동귀,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 검정”. 『상담학연구』 (2013), 14(1), 63-82.

25) 노고은,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인터넷 과다사용의 관계 : 자기개념 명료성과 사회불안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5)

26) Campbell, J. D., Assanand, S., & Paula, A. D. (2003). The structure of the self-concept and its relation to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71(1), 115-140.

27) Campbell, J. D., Trapnell, P. D., Heine, S. J., Katz, I. M., Lavallee, L.F., & Lehman, D. R. (1996). Self-concept clarity: Measurement,

유능하지 않고 가치가 낮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낮은 자기 가치감을 보호하기 위해 모호한 자기개념을 발달시킨다(노고은, 2015). 뿐만 아니라, 낮은 자기개념 명료성은 불안과 우울, 낮은 자존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 2007).[28]

3) 소비자 자신감

소비로부터 발생되는 문제는 소비자들이 경쟁적인 시장환경과 소비지향적 문화 속에서 스스로의 가치관을 상실한 채 소비사회 속에서 형성된 소비가치나 소비이미지를 추구하고 있으며 스스로 삶에서 주체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소비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스스로 자신의 의사결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소비생활을 주도할 수 있는 주체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이신애, 2017).[29] 소비자 자신감은 실제로 소비 행위 또는 소비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동적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소비자가 시장에서 자신의 결정 및 행동에 대해 유능하고 확실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Bearden, Hardesty, Rose, 2001).[30] 소비자 자신감은 개인적 및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소비대상을 구매하기 위해 적절한 정보를 탐색하고 처리하며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고 실제 교환 장면에서 효율적인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신념이라 할 것이다(이성수, 송유진, 2009).[31]

---

personality correlates, and cultural bounda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1), 141.

28) 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내현적·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자기개념 명료성과 부정적 정서특성”, 『한국심리학회지:임상』(2007), 26(2), 463-477.

29) 이신애, “라이프스타일 소비자자신감이 소비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구조분석”,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30) Bearden, William O., David M. Hardesty, and Randall L.Rose(2001), 'Consumer Self-Confidence: Refinements in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8(June), 121-134.

31) 이성수, 송유진, “구매시 지각된 위험과 정보탐색에 대한 소비자 자신감과 인지적 종결욕구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2009), 10(4), 723~736.

3. 금융사회복지

1) 금융사회복지와 재무적 안녕

전통적으로 금융은 영리, 반면 사회복지는 비영리를 각각 대표해왔다. 많은 사람들이 금융은 부자, 사회복지는 빈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금융에서는 자원 배분의 기준이 오로지 개인의 기여도인 반면, 사회복지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다. 그래서 이 둘의 결합에 금융사회복지를 처음 접한 사람들은 대부분 당황한다. 서로 다른 가치를 지향하고 있고, 상이한 지식과 기술에 기반을 두고 성장한 두 영역의 결합이 가능한 것일까? 단순히 사회복지의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성급한 하이브리드(hybrid)는 아닐까? 금융사회복지는 어떤 개념인가?(장동호, 2018)[32]

쉐라든 외(Sherraden, Frey, Birkenmaier)[33]는 금융사회복지(Financial Social Work)의 목적을 '건강한 금융서비스, 자산형성기회, 경제교육 및 지원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통해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재무적 안녕(financial wellbeing)을 향상' 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재무적 안녕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경제적 책무를 완전히 충족할 수 있고, 동시에 미래의 경제적 변화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으며, 삶을 즐겁게 만들 수 있는 선택(choice)이 가능한 상태' 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소비자 보호국(CFPB)[34]는 재무적 안녕은 <표 Ⅱ-1 > 과 같은 4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한다.

32) 장동호, "금융사회복지의 개념과 배경", 『제1회 금융사회복지컨퍼런스』(2018), 5~15.
33) Sherraden, M.S., Frey, J. J. and Birkenmaier, J. 2016. Financial Social Work. In J.J. Xiao (ed), Handbook of Consumer Finance Research(pp.115-127), New Work: Springer
34)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https://www.consumerfinance.gov/

<표 Ⅱ-1 > 재무적 안녕의 4가지 요소

구분	현재	미래
안전	일상적 지출에 대한 통제력	재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능력
선택의 자유	즐거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	재무 목표달성을 위한 행동

출처: CFPB. 2015. Measuring financial well-being: A guide to using the CFPB financial Well-being Scale. p.7.

- 자신의 재무에 대한 통찰력: 기간 내 공과금 납부, 관리 불가능한 채무 미보유, 가계수지 균형이 가능한 능력
- 재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 미래의 예상치 못했던 지출이나 사고에 대비한 재무적 완충(예: 예금, 건강보험, 높은 신용, 부모 등의 사적지원)보유
- 삶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선택: 소득활동이 아닌 휴가, 외식, 학위취득 등과 같은 경제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
- 재무 목표달성을 위한 행동: 학자금 대출 상환이나 노후를 위한 저축 등과 같은 재무적 목표의 보유와 이행

결국 금융사회복지는 재무적 측면에서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향상코자 하는 사회복지 정책이자 실천이다. 그리고 전통적 사회복지의 가치와 지식 그리고 기술의 중요함이나 유용성을 조금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복지의 취약성이 개인의 금융 의존도를 불필요하게 높임을 지적하며 복지국가의 확대를 지지한다. 금융사회복지의 특별한 점은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금융의 문제성과 가능성에 주목한다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존엄과 자유를 지키며 경제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심리사회적으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금융제도와 환경을 변화시켜야함을 주장한다. 동시에 개인과 더불어 가족,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제적 건강을 위해 금융과 경제에 대한 경제적 취약계층의 지식·기술·태도의 개선을 지원한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사회복지의 가치와 지식 그리고 기술에 기초하여 복지친화적인 금융환경을 조

성하고 동시에 저소득층의 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을 제고하는 것이다(장동호, 2018).[35]

2) 자산의 복지효과와 자산빈곤의 문제

저소득층에게 자산이 줄 수 있는 복지효과를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창안자인 마이클 쉐라든(Michael Sherraden)교수는 총 여덟 가지를 꼽는다. 첫째, 자산은 가계의 안정성을 확보해 줄 수 있다. 둘째, 자산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하고, 희망적인 미래를 가질 수 있다는 심리적 지지를 제공해준다. 셋째, 자산은 인적 자본을 포함한 다른 여러 유형의 자산 축적을 원활하게 한다. 넷째, 자산은 개인이 목표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한다. 다섯째, 위험을 감당할 여력을 제공한다. 여섯째, 자산은 자기효능감을 제고한다. 일곱째, 자산은 사회적 영향력을 제고한다. 여덟째, 자산은 정치참여 동기를 제고한다. 끝으로, 자산은 자녀의 복지를 증진시켜 빈곤의 대물림을 막는다. 요컨대, 자산의 효과는 경제뿐만 아니라 심리사회학적 측면에서의 발전으로도 나타난다. 한편, 자산빈곤(asset poverty)이라는 용어가 있다. 구체적으로 자산빈곤이란 일반적으로 실업, 사고 등으로 소득이 중단된 상태에서 일정기간 최소한의 욕구를 충족하며 사는데 필요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로 정의된다. 여기서 자산이란 매매할 수 있는 순자산으로서 부채를 제외한 것을 의미하는데, 통상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뺐을 때 남는 순자산이 최저생계비 3개월치를 밑도는 경우를 자산빈곤의 상태로 정의한다. 쉐라든의 관점에서 보면 저소득층의 자산빈곤은 가구의 경제적 불안의 문제를 뛰어넘는다. 구체적으로 자산빈곤의 문제를 예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산빈곤은 경제적 불안을 유발한다. 자산빈곤은 실업, 질병, 노년기의 소득감소와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처할 수 없게 함으로써 경제적 불안을 제공한다. 둘째, 자산빈곤은 저소득층이 미래를 위한 교육과 창업에 투자를 불가능하게 한다. 셋째, 자산빈곤은 저소득층의 심리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자산이 제공하는 직

35) 장동호(2018), 앞의 책.

접적인 물질적인 혜택 이외에도 자산소유가 제공하는 심리적 안정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경험하기 어렵게 한다. 끝으로 자산빈곤은 저소득층의 사회 및 정치적 참여를 어렵게 한다. 자산이 없는 경우 각종 사회적·정치적 공동체와 관계형성이 어렵고 공동체에 대한 주인의식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의 동기가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장동호, 2018). [36]

4. 근거이론

1) 근거이론 연구의 특징

근거이론(Grounded Theory) 방법은 경험적 자료에 근거해서 이론을 개발하는 질적 분석 방법이다(Strauss, Corbin, 1990).[37] 근거이론은 실제 자료에 근거해서 하나의 이론을 도출해내는 이론개발 과정으로, 체험자가 현상에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는가를 이해하는데 사용되는 접근법이다. 근거이론은 실제 자료에서 개념들을 범주화하고 개념간의 관계와 실제 현상을 연결할 수 있는 가설들을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론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근거이론은 현상에 대한 적합한 개념이나, 이론적 근거가 주어지지 않은 분야들이나, 기존 이론이 있지만 수정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근거이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론이 자료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많은 수의 참여자들의 관점으로 생성된 자료로부터 나온 이론은 추론이 아닌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 현실을 더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다(Strauss, Corbin, 1998). [38]

2) 근거이론 연구방법 절차

(1) 개념 정리

---

36) 장동호(2018), 앞의 책.

37) Strauss, A., & Corbin, J. 저, 김수지·신경림 역, 『근거이론의 이해: 간호학의 질적 연구 수행을 위한 방법론』(서울: 한울아카데미, 1996).

38) Strauss, A., and Corbin, J. (1998).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 Thousand Oaks, CA, US:Sage Publications.

이론화(theorizing)는 개념 정리(conceptual ordering)에서 시작된다. 개념 정리란 원자료를 분석하여 속성(properties)및 차원(dimension)에 따라 개념을 조직하고, 등급을 정하는 분석 작업을 가리킨다. 직관적으로 개념을 구상하고, 논리적 체계적 설명적 도식으로 개념들을 연결시킨다. 이론화 작업은 자료로부터 귀납적 방식으로 이론을 생성한다(Strauss, Corbin, 1998).[39]

(2) 코딩

코딩은 자료(data)를 분해해서 얻은 개념들을 통합하는 분석의 과정이다. 코딩 작업은 개방 코딩과 축코딩 그리고 선택 코딩으로 나누어진다. 이들은 각각 독립적이지 않고 순차적이며 상호작용적이다. 개방 코딩으로 범주가 일반화되고, 축 코딩으로 범주의 상호관련성이 정립되며, 선택 코딩으로 핵심 범주와 다른 범주들 간의 통합과 정교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개방코딩(opening coding)은 원자료를 분해해서 독립적인 요소로 분리하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공통된 현상에 이름을 붙이는 일종의 공통성 분류화 과정이다. 둘째, 축코딩(axial coding)은 도출된 범주들을 서로 교차시키거나 연결시키는 단계다. 중심현상의 범주를 중심으로 자료들을 재조합함으로써 일관되고 집약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연구자는 중심현상은 무엇인가? 원인은 무엇인가? 등의 '코딩 패러다임(coding paradigm)'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하나의 도식으로 관계를 개념화한다. 셋째는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이다. 코딩하는 마지막 단계로, 분석의 차원을 이론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범주를 결정하는 것이다(Strauss, Corbin, 1998).[40]

(3) 핵심범주와 이론의 생성(discover a the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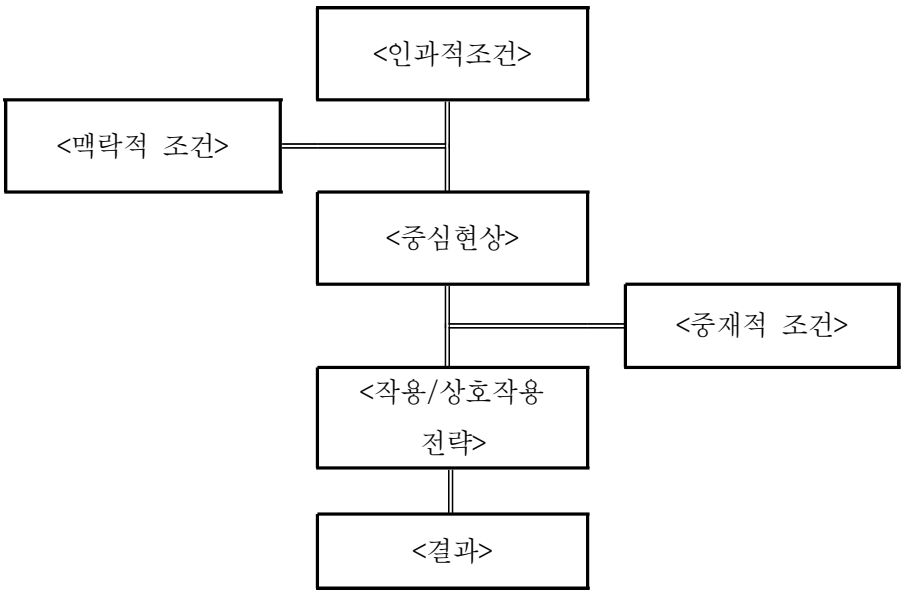
핵심범주는 몇 개의 단어를 사용하여 이 연구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압축하는 것이다. 여러 범주 사이의 다양한 변화를 핵심범주로 설명하고 통

39) Strauss & Corbin(1998), 앞의 책.
40) Strauss & Corbin(1998), 앞의 책.

합할 수 있다. 핵심 범주를 생성하는 기법은 스토리라인(storyline)을 작성하기, 이야기를 재작성하는 기법, 도식과 메모를 통해 개념 간 관계를 새로 정립하는 기법이 있다. 근거이론 연구방법은 이론을 개발하는 과정으로 중요하다. 이론을 검증하는 것은 아니다(Strauss, Corbin, 1998).[41]

(4)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

패러다임 모형은 원인이 되거나 영향을 주는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과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이기도 한 관련 집단의 중심 생각이나 사건인 중심현상(central phenomenon), 그리고 맥락적(context),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s)을 통해 체험자들이 선택한 작용/상호작용 전략(strategies)의 결과물인 결과(consequences)로 구성되어 있다(Strauss, Corbin, 1998).[42]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은 <그림 Ⅱ-1>와 같다.



<그림 Ⅱ-1>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Strauss & Corbin, 1998).

41) Strauss & Corbin(1998), 앞의 책.
42) Strauss & Corbin(1998), 앞의 책.

3) 이론적 민감성

이론적 민감성은 자료 속에서 중요한 것을 알아보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연구자 개인의 통찰력이다. 즉 자료의 미묘한 의미와 관련성을 구분해 낼 수 있는 능력이다. 이론적 민감성을 가진 연구자는 현상을 세밀하고 예리하게 감지할 수 있으며, 개념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이론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론적 민감성은 연구자의 창의적 능력이다. 이러한 민감성을 가지고 연구자는 새로운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연구하고, 연구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고 이론을 발전시킬 잠재성이 있는 자료와 현상을 더 잘 찾아낼 수 있다. 창의적인 분석기술과 상상에 의해 이론적 민감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 창의적인 기술과 실제 사이에서 연구자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Strauss, Corbin, 1998).[43]

Ⅲ. 연구방법

1. 연구관계자

본 연구에서 연구관계자는 연구 참여자와 연구동료 그리고 연구자이다. 연구 참여자는 2016년 이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로 온라인 지출관리체험 프로그램인 “그뤠잇(great)한 청년의 영수증”[44]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2017년 10월 1차 59명, 11월 2차 149명, 2018년 3월 3차 58명중 1차 참여자 59명을 대상으로 했다. 참여자들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고 미혼과 기혼인 사람들로 섞여있다. 연구 참여자로 선정한 이유는 일부 기혼자도 있지만 대부분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으로서 돈을 벌고 관리하는 데에 많은 고민들이 있고, 경기도라는 생활공간과 일정수준이하의 재

43) Strauss & Corbin(1998), 앞의 책.
44)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실행된 경기복지재단의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들을 위한 후속관리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다.

산 및 소득분위에 속해있는 세대 및 환경적 동질감이 있기 때문이다. 재정적 보상으로 개선될 경제적 환경에 대한 기대감은 적극적으로 체험과정에 참여하여 자기발전을 계획하는 동기요소이다.

연구자는 실행연구에서 연구를 이끌어 가기도 하고, 연구도구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연구자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자는 고객들의 가정경제안정은 '자산의 안정성' 과 '가족간 화목함' 이라는 정서적 측면을 통해 실행된다는 생각을 2007년 이후 고객들과의 경험적 활동을 통해 체득하여 왔다. 하지만 서로 간 소득이 다르고 소비성향이 다른데도 각자가 만족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경제적 안정성의 기준은 무엇인가? 또, 경제적 문제에서 정서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 어떤 심리태도가 있어야하는가에 대한 실용적인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 즉, 돈에 대한 구체적인 자기기준을 가져야한다는 것으로 해결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소득→배분→지출에서 돈의 최종도착지인 지출의 결과에 집중하면 자기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대부분 거의 모든 사람들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클라우디아 해먼드, 2017)[45]. 또 소중하게 다루려고 한다. 화폐를 중심으로 모든 교환이 이루어지는 환경에 적응된 사람들의 행위는 대부분 교육과 훈련 등의 돈을 벌기위한 사전행위와 직접 돈을 버는 행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을 사용하는 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돈의 최종도착지인 지출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선택을 한다. 이러한 지출과정을 성찰해간다면 '내가 지향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욕구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얼마의 돈이 필요한가?' 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게 되었다. 본인에 적합한 삶을 위한 자원의 크기를 인식할 때 상대보다 더 많은 소득을 위해 무한 경쟁에서 지치고 소진되는 삶을 피해 물질과 심리정서가 안정되는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또 다른 연구관계자는 연구동료이다. 연구동료들은 실행연구에서 연구자에게 객관적인 시선을 확보하도록 하고 연구의 타당도를 높여주는 도움을

45) 클라우디아 해먼드 저, 도지영 역, 『돈의 힘』(서울: 위너스북, 2017).

제공한다. 이 연구에서 연구동료는 <표 Ⅲ-1>처럼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관계자로 구성하였다.

<표 Ⅲ-1> 연구동료의 개인적 배경

연구동료	소속	비 고
김 0 0	경기복지재단	청년통장 T/F팀 과장 온라인 체험단 공동기획과 운영
김 0 0	경기복지재단	청년통장 T/F팀 과장 온라인 체험단 공동운영
최 0 0	한국가정경제교육협회	한국가정경제교육협회 연구원 온라인 체험사업기획참여
전 0 0	한국가정경제교육협회	한국가정경제교육협회 수석연구원 온라인 체험단 공동운영, 멘토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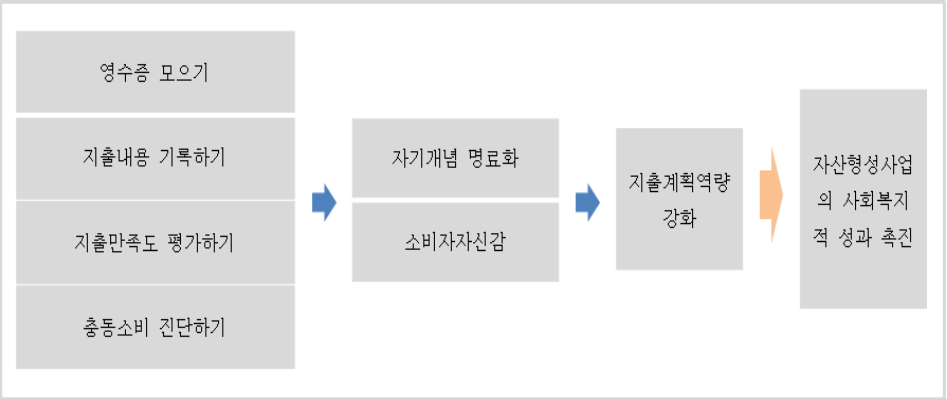
위와 같이 구성을 한 이유는 한국가정경제교육협회 연구원들은 수년간 다양한 계층의 고객에게 재무코칭을 실행하면서 현장에서 돈 관리의 실천적 지식을 많이 확보했고, 청년통장 T/F팀 직원들은 현직에서 청년통장사업을 관리하고 있고 통장가입자들의 실태를 실제적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에게 연구 방향 설정이나 설계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실행과정에서 객관적인 시선을 확보하고 대안을 구체적으로 함께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연구절차

1) 연구진행과정 모형

자기성찰형 지출관리는 지출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욕구, 능력, 신념, 견해,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인식함으로서 자기개념을 명료화하는 것이다. 지출파악하기를 통해 “돈쓰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를 찾고, 지출계획을 통해 자기개념에 부합한 삶을 영위해 가도록 한다. 자기성찰형 지출관리는 “돈 관리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하게하고 “돈 관리 방법”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돈 관리 자신감”을 향상하게 한다. 부수적으로 지속적인 개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적정소득의 크기와 지속가능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재무적인 자기기준을 체득하게 된다. 자기성찰형 지출관리의 흐름은 <그림 Ⅲ-1> 과 같다.



<그림 Ⅲ-1> 연구진행과정 모형.

2) 자료수집방법

근거이론의 창시자인 스트라우스(Strauss)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연구 참여자가 체험과정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고,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의 상호작용 상태는 풍부한 자료수집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온라인 체험에 참여하는 청년 참여자들과 멘토, 관리자로 구성된 운영진과의 꾸밈없고 부담 없고 평등하고 자발적인 체험과정 전체에서 표현된 청년 참여자의 이야기를 수집하였다. 개입을 철저히 배제하고 청년들의 지출체험과정을 객관적으로 지켜봤다. 청년들의 소비지출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않았다. 청년들도 스스로 체험과정을 선택했고, 4주간의 체험과정에서도 본인들이 실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미션을 진행하는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된 상황에서 체험과정을 진행하였다. 이런 수집과정으로 수집된 자료의 진정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Ⅲ-2> 자기성찰형 지출관리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59명의 매주 미션을

실행하면서 느꼈던 소감을 연구의 원자료로 수집하였다.

<표 Ⅲ-2> 자기성찰형 지출관리 체험프로그램

기 간	미 션	내 용	비 고
1주차	영수증 모으기	투명봉투에 영수증을 모은다.	받지 못한 영수증은 포스트잇에 본인이 메모한다.
2주차	지출내용 기록하기	노트에 영수증을 붙이고 내용을 기록한다.	노트를 준비한다.
3주차	지출만족도 평가하기	상 중 하로 만족도를 평가한다.	상: 금액 효능 내 감정 만족 중: 특별한 불만 없음 하: 금액 효능 내 감정 불만
4주차	충동소비 진단하기	지출성격을 ABCD로 측정한다.	A:급하고 중요한 것 B:급하지 않으나 중요한 것 C:급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 D: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

3) 자료분석방법

근거이론의 분석은 3개의 코딩작업으로 구성된다. 개념을 추출하고, 관련성 짓기를 추구하는 것이 근거이론의 연구방법이다. 먼저, 개방코딩 작업에서 범주를 파악하고, 명명할 때까지 작업을 진행한다. 다음 범주끼리의 관련성을 축코딩 작업에서 검토하고, 범주 간 관련 도표를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선택코딩 작업을 실시하고, 추상도가 높은 현상을 파악한다. 자료분석 과정은 <표 Ⅲ-3> 과 같다.

<표 Ⅲ-3> 근거이론 연구의 자료 분석 과정

자료수집 단계	이야기자료 수집
개방코딩 단계	• 자료 반복해서 읽기 • 자료를 의미별로 분절하기 • 분절된 자료에서 속성과 차원을 추출, 개념설정 및 명명 • 개념을 범주화하고 범주 명명
축코딩 단계	• 각 범주를 패러다임 모형을 사용하여 현상별로 분류 • 중심현상이 되는 범주를 한 개 선택 • 개념을 사용하여 이야기 윤곽 작성
선택코딩 단계	•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관련 도표를 작성 • 핵심범주를 통해 이야기 윤곽 재확인 과정실행 • 추상도가 높은 현상을 이야기 윤곽으로 설정

Ⅳ. 연구결과

1. 개방코딩

1) 지출파악하기 체험에 대한 해석적 기술

본 절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지출관리체험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을 각각의 독립된 범주로 분석하고, 범주의 내용을 해석해 보고자 한다.

(1) 영수증 무시

연구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요즘의 거의 모든 소비자들이 현금을 통해 소비지출하기 보다는 신용카드(체크)나 모바일 결제하는 경우가 많고 인터넷 거래같은 비대면 거래가 많다. 연구 참여자들도 평소처럼 지출 후 영수증에 대한 무관심이나 '영수증을 버려주세요'라는 행동들이 보인다.

> · 와 ... 카드를 쓰니까 당장 돈이 안 나간다 생각해서 그런 건지 마구 긁게 되네요. ㅠㅠ 이번에 영수증 모으면서 매달 월급날에 왜

돈이 없는지 알게 됐어요. ㅠㅠ

· 평소에는 영수증을 확인도 하지 않고 버리는 일이 많았는데 일주일 동안 모아 보려고 하니 어색하고 습관처럼 버리고 안 챙기게 되더라구요. 그런데 챙기고 일주일동안 챙겨놓은 영수증을 확인하니 계획에 없었던 지출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느끼게 되는 한 주였던 거 같아요.^^

· ㅋㅋ소액영수증은 버려달라고 부탁하는데..미션덕분에 챙겼네요. ㅋㅋ

· 항상 인터넷으로만 구매하니까 영수증에 대해 소홀해졌어요.

· 소액영수증을 버려달라고 했었네요.

· 저는 지출보단 자동이체 된 내역이 훨씬 많더라구요.ㅠㅠ

· 습관이 안 되서 다 모으진 못했지만~:노력은 했습니다.~~!!

위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에게 나타나는 영수증에 대한 무관심과 소홀함을 ‘영수증 없는 소비’로 하위범주화 하였다.

(2) 영수증 바라보기

연구 참여자들이 영수증을 모아야 하는 미션상황에서 의무적으로 영수증을 대면해야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럴 때 영수증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 영수증 모아야 되는 .. 미션 덕분에 소비를 맘껏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ㅎㅎㅎ

· 너무 많이 모았어요. ㅋㅋ 네식구 살림이다보니ㅠ 담주엔 영수증양이 좀 줄었으면 좋겠네요.

· 아주 소중하고 즐거운 지출을 했어요.^^ 한 번에 영수증을 보니 뜨끔하긴 하네요.~~

· 지출한 영수증을 모아서 보니 생각했던 것 보다 많은 것 같아요.

· 영수증 보면서 나는 돼진가 고민하게 됩니다. ㅎㅎ

· 지출은 평소처럼 했어요. 근데 막상 모아보니 너무 많이 불필요한 곳에 지출을 한 것 같아서 앞으로 불필요한 부분은 지출자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영수증을 모아놓고 보니 이번 주는 많이 사용한 것 같고... 일주일에 이만큼의 돈이 빠져나가는걸 알 수 있었습니다. ㅜㅜ

위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이 영수증을 봄으로 인해서 느끼는 여러 부정적인 부담들을 「신경쓰이는 영수증」으로 하위범주화 하였다.

(3) 체험기회

연구 참여자들은 자기의 소비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는 것, 융용하고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권유해주는 것 등 도움이 되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낀다.

· 좋은 기회였습니다. 감사해요. 누가 자신의 소비에 관심을 가지고 멘토해주시는 건 새롭고 자극이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 다양한 콘텐츠들 넘나 좋습니다!

· 이번 청년의영수증은 매우 유익한 체험이었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친절하게 말해주시고 주말이나 밤늦게 글을 써도 바로 대답해주시는 것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도 해주셔서 더욱더 의지도 되고 기뻤습니다.

· 청년들 프로그램이 생겨서 참여할 수 있어서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번 청년의영수증은 매우 유익한 체험이었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ㅎㅎ 이번에 체험은 괜찮았어요. 새로워서 저도 제 지출에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다양한 체험 부탁드릴게요 온라인으로...ㅎㅎ

· 한 달 동안 지출에 대한 개념도 잡히고 어느 부분에서 많이 쓰는지 한눈에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본인의 성장에 대해 도움이 되었고, 프로그램을 실행해준 기관에 감사하는 등 확장된 자기를 찾을 수 있는 경험을 '값진 경험' 으로 하위범주화 하였다.

(4) 지출파악

연구 참여자들은 지출체험과정에서 지출을 기록하는 것으로 의미를 두기도 하고 지출파악을 과정에서 자기의 지출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기도 한다.

· 저의 지출 패턴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 나의 지출 내역을 파악해 볼 수 있었고, 불필요한 지출에 대해 생각하고 줄여볼 수 있었어요~^^

· 소비패턴을 돌아보며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어서 쓸 때마다 생각을 하고 쓸 수 있었습니다.

· 평소에는 지출에 대한 감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소비습관과 패턴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 짧은 시간 이나마 소비지출에 대해 알아 볼 수 있었으며 2차에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위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이 지출내용을 한 번 더 보게 되거나 어떤 부분에서 지출이 많았다는 등 객관적으로 자신의 지출을 파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를 '지출 돌아보기'로 하위범주화 하였다.

· 4주간 지출을 적어보면서 소비패턴이 어떤지 알 수 있었고 절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그동안 돈 쓰면서 메모하는 습관이 없었는데 미션을 달성하면서 점점 생기고 또 생각하며 돈을 쓰게 되서 아주 좋았어요!!

· 제 소비패턴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도 꾸준히 영수증을 모으며 지출을 기록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4주간 영수증 모으기를 하고 따로 가계부를 적으면서 얼마나 그동안 과소비를 한지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쭉 가계부작성해서 과소비를 줄여야겠어요.

· 가계부를 작성하면서 소비패턴도 보고 낭비하는 건 없는지 아낄

수 있는 비용은 뭔지 한 번 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다음 체험도 참여할게요~ 감사합니다.

· 평소 가계부를 이용하지만 이렇게 해보니 또 새로웠습니다. 너무 의미있고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이 가계부에 대해 지출기록을 꼼꼼히 하는 것부터 지출내역을 통해 지출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필요없는 지출을 파악하는 모습을 '지출기록하는 가계부'로 하위범주화 하였다.

(5) 영수증 의미 파악

연구 참여자들이 영수증에 대한 귀찮은 대상으로 또는 신경쓰이는 것으로 생각하는 중에도 영수증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을 수용하고 있다.

· 깜박하고 영수증 못받은 지출은 포스트잇에 적어놨습니다!

· 영수증을 모아보니 집에 와서 다시 지출내용을 한 번 더 보게 되구 돈을 쓸 때도 100원이라도 덜 쓰는 방법을 찾게 되는 거 같아요 ~~~

· 영수증 모은 거 첨 해 봤는데!! 신선햇슙니다~

· 이번에 영수증 모으면서 매달 월급날에 왜 돈이 없는지 알게 됐어요. ㅠㅠ

· 네 ~ 영수증을 모아서 보니 지출억제를 못한 것 같아요ㅠ

· 이거 보니까 생각보다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거 같네요 bb. 이 기회에 영수증 모아서 체크 해 봐야겠어요.

· 영수증을 모아놓고 보니 이번 주는 많이 사용한 것 같고... 일주일에 이만큼의 돈이 빠져나가는걸 알 수 있었습니다 ㅜㅜ

· 지출한 영수증을 모아서 보니 생각했던 것 보다 많은 것 같아요.

위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이 영수증으로 인해 지출에 대한 자각이나 습관을 조정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영수증에 대한 긍정적 태도'로 하위범주화 하였다.

(6) 가계부 의미 파악

연구 참여자들이 또한 지출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가계부를 작성해야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지출만족도와 중요도를 평가하는 다양한 기능으로서 가계부의 의미를 두고 있다.

> · 그동안 가계부를 작성할 때 만족도나 중요도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며 작성해보니 느낌이 달랐다.
>
> · 가계부를 작성하면서 소비패턴도 보고 낭비하는 건 없는지 아낄 수 있는 비용은 뭔지 한 번 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
> · 평소 가계부를 이용하지만 이렇게 해보니 또 새로웠습니다. 너무 의미있고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 · 만족도 중요도 평가 등 중요한 개념 배워갑니다^^
>
> · 어디에 가장 많은 지출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만족도와 중요도를 표시하면서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성향이 있구나.. 반성도 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이 가계부가 단순히 지출지록하는 것보다는 지출만족도를 평가함으로써 차후 소비지출에 대한 계획과 조정기준을 갖는 다는 것에 많은 의미를 두고 있다. 이를 '새로운 가계부'로 하위범주화 하였다.

(7) 한 번 더 생각하는 지출

연구 참여자들은 지출체험을 통해 지출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거나 귀찮지만 본인의 지출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다. 생각하는 지출이 즐겁고 만족한 지출행위임을 알게 되었다.

> · 소비패턴을 돌아보며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
> · 나의 지출 내역을 파악해 볼 수 있었고, 불필요한 지출에 대해 생각하고 줄여볼 수 있었어요~^^
>
> ·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어서 쓸 때마다 생각을 하고 쓸 수 있었습니다.

· 앞으로도 영수증을 모으는 습관을 들여서 생각하는 소비를 할 예정이다.

· 이계기로 헛된소비에는 망설이고 반성할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소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였어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이 지출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본다는 것이 귀찮은 행위이지만 기꺼이 할 수 있었고 의미있는 결과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를「한 번 더 생각」으로 하위범주화 하였다.

· 그동안 돈 쓰면서 메모하는 습관이 없었는데 미션을 달성하면서 점점 생기고 또 생각하며 돈을 쓰게 되서 아주 좋았어요!!

· 제 소비패턴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도 꾸준히 영수증을 모으며 지출을 기록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출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서 좋았습니다.

· 의미있는 지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 결제할 때도 올바른 소비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보게 되었고, 생각없이 쓰던 것들이 너무 많아서 새삼 놀랐고, 계획적이고 신중하게 소비를 하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 한 달간 참여하면서 그냥 했던 지출이 생각하는 지출로 바뀔 수 있게 되었어요. 무조건 안 쓰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더라구요. 항상 행복이라는 가치를 가까이하고 싶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가계부를 평소에 쓰지 않아 체험을 통해서 소비지출이 어느 정도 나가는 지에 대해한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새로운 경험을 통해 소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이 그냥 했던 지출들이 생각하는 지출로 바뀌고 있음을 '생각하는 지출'로 하위범주화 하였다.

(8) 지출통제

연구 참여자들은 지출체험과정에서 자기 지출을 파악하고 지출을 분석하고 억제하는 욕구를 갖게 되었다.

· 1차때보다 아껴보려 했는데 잘 안 되었네요ㅎㅎ

· 1주차미션을 하면서 쇼핑지출이 많은 거 같아 자제했더니, 지출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 원래는 일주일에 거의 매일 돈을 썼는데 이번 주는 3일밖에 안 썼네요.

· 저번 주에 카드풀리고 엄청 써서 자제 했네요. ㅋㅋ

· 확실히 저번 주 보다는 구매 내역이 줄었습니다.^^

· 너무 많이 모았어요ㅋㅋ 네 식구 살림이다보니ㅠ 담 주엔 영수증 양이 좀 줄었으면 좋겠네요.

위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이 소비충동을 억누르고 지출욕구를 자제하는 행위들과 지혜롭게 돈쓰기를 해야겠다는 욕구를 ‘지출억제’로 하위범주화 하였다.

·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 보내면 돈을 생각지도 못하게 쓰게 되었어요. 그래도 좋은 시간 보내게 되어서 좋았어요~

·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었는데 어쩔 수 없이 가고 밥도 맛이 없어서 좋은 평가를 줄 수가 없더라고요. 4주 동안 제 소비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 요번 달은 요가학원 연장이 있어서 지출이 크네요.ㅜㅜ

· 커피는 줄일 수 있는 소비였기에 ‘하’로 표시했네요..ㅎ

· 이번 주는 줄인다고 줄였지만 간만에 여자 친구를 만나 절제하지 못한 한 주였습니다.ㅠ 반성합니다.

· 이번 주 돈 안 쓰려고 노력했는데..그래도 이것저것 써버렸네요. 늦었습니다.ㅠㅜ

· 다른 특이사항은 없구...굳이 안 먹어도 되는 술을 먹어서 만족도를 ‘중’으로 했습니다.^^

· 핫도그는 딸아이가 먹고 싶다 해서 어쩔 수가 없었네요. ㅋㅋ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위와 같이 지출통제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를 ‘어려운 지출통제’로 하위범주화 하였다.

· 영수증을 모아놓고 보니 이번 주는 많이 사용한 것 같고... 일주일에 이만큼의 돈이 빠져나가는걸 알 수 있었습니다 ㅜㅜ
· 지출은 평소처럼 했어요. 근데 막상 모아보니 너무 많이 불필요한 곳에 지출을 한 것 같아서 앞으로 불필요한 부분은 지출자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영수증을 모아보니 집에 와서 다시 지출내용을 한 번 더 보게 되구 돈을 쓸 때도 100원이라도 덜 쓰는 방법을 찾게 되는 거 같아요 ~~~
· 와...카드를 쓰니까 당장 돈이 안나간다 생각해서 그런건지 마구 긁게 되네요ㅠㅠ 이번에 영수증 모으면서 매달 월급날에 왜 돈이 없는지 알게됐어요. ㅠㅠ
· 한주동안 급하고 중요한 것보다 아닌 것에만 지출이 있었네요..! 항상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게 많다보니까 영수증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소액영수증에 대해 항상 소홀해지는 것 같아요.
· 만족도와 중요도를 남기니까 소비의 효율성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아요.^^
· 저는 간식은 거의 안 먹는 편인데 술...을 좋아해서ㅎㅎ 모임이 많아 지출이 그쪽으로 많은 것 같아요! 만족도는 높았지만 급 결정된 모임 같은 건 줄이도록 노력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보며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참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 신용카드를 없애려고 마음먹고 말일에 월급을 받자마자 신용카드 대금부터 갚고 적금 넣고 남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ㅎㅎ 신용카드 쓸 때는 당장 나가는 돈이 아니니까 마구 긁어댔는데 체크카드는 나가는 돈과 함께 잔액이 확인 되니까 정말 필요한 물건만 사고 최소한의 돈만 쓰는 것 같아요 ㅎㅎㅎ 예상치 못했던 경조사가 생기고해서 운동화가 망가지면서 계획했던 지출에는 변동이 있겠

지만 그래도 영수증을 모으고 지출내역을 작성하면서 필요 없는 지출을 많이 줄일 수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제 만족도는 별 5개중 4개입니다.

위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이 자기의 지출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게 되는 행위를 '지출분석'으로 하위범주화 하였다.

· 이번 주 배운 점! 1. 나한테 쓰는 돈은 아깝지 않은데.. 남에게 쓰는 돈이 쉽지 않다. 2. 끝까지 미션을 수행해야겠다!! 입니다~

· 예상치 못했던 경조사가 생기고 해서 운동화가 망가지면서 계획했던 지출에는 변동이 있겠지만 그래도 영수증을 모으고 지출내역을 작성하면서 필요 없는 지출을 많이 줄일 수 있어서 좋아요!

· 택시만족도 상' 택시 타서 기차를 1시간 덜 기다릴 수 있었어 요~~

·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 보내면 돈을 생각지도 못하게 쓰게 되었어요. 그래도 좋은 시간 보내게 되어서 좋았어요.~

· 가고 싶지 않은 자리였는데 어쩔 수 없이 가고 밥도 맛이 없어서 좋은 평가를 줄 수가 없더라고요.

· 저는 간식은 거의 안 먹는 편인데 술...을 좋아해서ㅎㅎ 모임이 많아 지출이 그쪽으로 많은 것 같아요! 만족도는 높았지만 급 결정된 모임 같은 건 줄이도록 노력해봐야 할 것 같아요!

위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이 자기의 지출을 원인을 찾아 이야기구조로 분석하는 행위를 '지출환경 분석'으로 하위범주화 하였다.

(9) 소비패턴

연구 참여자들은 영수증을 모으고 기록하고 만족도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나의 소비가 어떻게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 지 등 소비패턴을 인식하게 되었다.

· 소비패턴을 돌아보며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 4주간 지출을 적어보면서 소비패턴이 어떤지 알 수 있었고 절약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평소에는 지출에 대한 감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소비습관과 패턴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 저의 지출 패턴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 재밌었고 제 소비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서 알게 모르게 나가던 자잘한 금액을 잡아줘서 좋았어요! 재밋었습니다.ㅎ

· 제 소비패턴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도 꾸준히 영수증을 모으며 지출을 기록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평소 소비패턴을 되돌아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가계부를 작성하면서 소비패턴도 보고 낭비하는 건 없는지 아낄 수 있는 비용은 뭔지 한 번 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위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이 자기만의 소비모습과 습관을 파악하는 과정을 「소비패턴파악」으로 하위범주화 하였다.

(10) 지출이해력

연구 참여자들이 지출을 평가하고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과 만족과정을 파악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다.

· 다른 특이사항은 없구...굳이 안먹어도 되는 술을 먹어서 만족도 를 '중' 으로 했습니다^^;;

· 도너츠.:ㅋㅋㅋㅋ한주 고생한 저에게 주는 선물이라 상 ! 입니다 ^ ^ ㅋㅋㅋㅋㅋㅋ

· 네 만족도를 체크해보니 소비 당시 기분을 다시 떠올려볼 수 있었어요.

· 출근길 기차를 기다리며 집어먹는 어묵은 말로표현 할 수 없을 만큼 맛있었네요. 지인 선물로 준비한 아기수면 잠옷도 만족스럽구요. 만족스런 한 주네요.

· 커피는 줄일 수 있는 소비였기에 '하' 로 표시했네요..ㅎ

· 이번 주는 야근을 많이 해서 소비패턴이 단조롭고 만족도가 낮습니다.ㅠ

· 영수증을 모으고 지출내역을 작성하면서 필요 없는 지출을 많이 줄일 수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제 만족도는 별 5개 중 4개입니다.

위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지출에 대한 만족도를 상, 중, 하로 평가하고 있다. 이를 '만족도평가'로 하위범주화 하였다.

· 낭비지출이나 사용내역을 정확히 알고 절감이 되는 기분입니다. 잘못된 소비의 원인을 밝히고 올바른 소비를 통해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 영수증으로 나의 소비패턴과 지출 내용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소비에 대한 만족감이 어느 정도였는지 되돌아 볼 수 있었다.
· 저번 주는 정말 행복한 지출뿐이었던 것 같아요!이렇게 다시 돌아보면서 행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도 감사 해요!
· 이번 주 지출은 외식을 줄이고 저번 주에 사둔 재료들로 집들이 준비를 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네요.
· 신용카드 쓸 때는 당장 나가는 돈이 아니니까 마구 긁어댔는데 체크카드는 나가는 돈과 함께 잔액이 확인 되니까 정말 필요한 물건만 사고 최소한의 돈만 쓰는 것 같아용 ㅎㅎㅎ 예상치 못했던 경조사가 생기고해서 운동화가 망가지면서 계획했던 지출에는 변동이 있겠지만
· 나는야..충동끝판 왕..ㅠㅜ이렇게 정리해보니..충동소비의 대마왕이었어요.ㅠㅜ
· 무조건 안 쓰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항상 행복이라는 가치를 가까이하고 싶어졌어요.

위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움직이는 동선대로 소비가 일어남'과 '행복이라는 가치' 등 심층적인 관찰로 지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지출이해'로 하위범주화 하였다.

(11) 관계지출

본인 중심의 소비지출뿐만 아니라 관계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출도 의미 있는 행위임을 연구 참여자들의 모습에서 파악할 수 있었다.

· 너무 많이 모았어요 ㅋㅋ 네 식구 살림이다보니ㅠ 담 주엔 영수증 양이 좀 줄었으면 좋겠네요.

· 저는 간식은 거의 안 먹는 편인데 술...을 좋아해서ㅎㅎ 모임이 많아 지출이 그쪽으로 많은 것 같아요! 만족도는 높았지만 급 결정된 모임 같은 건 줄이도록 노력해봐야 할 것 같아요!

· 아이 병원비는 중요하고 아프지 않게 해주니 만족도 상이에요. 오늘은 빼빼로 데인데 일을 하니 어제 미리 인형과 함께 주었네요. 아내가 작은 선물에도 기뻐하니 참 기분이 좋습니다. 4주 동안이지만 앞으로도 가계부를 습관들여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었는데 어쩔 수 없이 가고 밥도 맛이 없어서 좋은 평가를 줄 수가 없더라고요.

· 줄일 수 있는 군것질거리들이 꽤 되더라구요.. 이 부분을 와이프와 논의하여 만족도, 중요도가 높은 소비를 만들어가야겠습니다.

· 나한테 쓰는 돈은 아깝지 않은데.. 남에게 쓰는 돈이 쉽지 않다.

· 간만에 여자 친구를 만나 절제하지 못한 한 주 였습니다. ㅠ 반성합니다.

· 핫도그는 딸아이가 먹고 싶다 해서 어쩔 수가 없었네요 ㅋㅋ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위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관계자들 사이에서 지출이 늘거나 줄거나 할 수 있고 만족감 또한 다를 수 있음을 '관계지출'로 하위범주화 하였다.

(12) 신용카드 사용기준

연구 참여자들은 소비지출도구인 신용카드에 대한 자기판단이 있고 사용기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와...카드를 쓰니까 당장 돈이 안 나간다 생각해서 그런건지 마구 긁게 되네요.ㅠㅠ 이번에 영수증 모으면서 매달 월급날에 왜 돈이 없는지 알게 됐어요. ㅠㅠ

· 저번 주에 카드풀리고 엄청 써서 자제 했네요. ㅋㅋ

· 신용카드를 없애려고 마음먹고 말일에 월급을 받자마자 신용카드 대금부터 갚고 적금 넣고 남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ㅎㅎ 신용

카드 쓸 때는 당장 나가는 돈이 아니니까 마구 긁어댔는데 체크카드는 나가는 돈과 함께 잔액이 확인 되니까 정말 필요한 물건만 사고 최소한의 돈만 쓰는 것 같아요. ㅎㅎㅎ

위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신용카드의 문제를 당장 돈이 안 나가니까 마구 사용한다는 것에 동일한 체험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신용카드 사용유혹'으로 하위범주화 하였다.

(13) 절약

연구 참여자들은 지출파악과 새로운 가계부 기능을 활용하여 가장 손쉽게 지출을 조정할 수 있었다.

· 근데 막상 모아보니 너무 많이 불필요한 곳에 지출을 한 것 같아서 앞으로 불필요한 부분은 지출자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영수증을 모아보니 집에 와서 다시 지출내용을 한 번 더 보게 되구 돈을 쓸 때도 100원이라도 덜 쓰는 방법을 찾게 되는 거 같아요 ~~~

· 지출을 알고 정리하게 되니 불필요한 지출이 적어져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 다시 한 번 더 아껴 쓸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좋았구요~~

· 이계기로 헛된 소비에는 망설이고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네요!!

· 정리를 하다 보니 영수증없이 쓰는 돈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더 자각을 덜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구요 미션하면서 돈을 아껴 쓰게 되는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 이번 주 지출은 외식을 줄이고 저번 주에 사둔 재료들로 집들이 준비를 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네요.

위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의 생각과 행위를 '지출줄이기'로 하위범주화 하였다.

(14) 자기성찰

연구 참여자들은 지출체험과정에서 돈을 쓰고 있는 나를 통해서 명확하게 자기를 분석하고 성찰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 간식은 안 먹는 편이고 술을 좋아해서 모임과 지출이 많음, 급 결정된 모 임에 참석하는 건 줄이도록 노력해야겠어욤.

· 어떤 지출에서 만족이 좋았는지 어디서 지출충동을 억누를 수 있었는 지 알 수 있었어요.

· 지출을 알고 정리하게 되니 불필요한 지출이 적어져서 너무 행복 했어요.

· 지출에 대한 개념도 잡히고, 지출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생각 할 수 있게 된 계기였어요.

· 돈은 내가 쓰고 만족하면 된다.(실제로)

· 일만하느라 돈 쓸 시간이 없었음, 돈을 안 써서 다행이나 돈을 안 써서 한편으론 씁쓸하기도 했어요.

· 헛된 소비에는 망설이고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이 지출에 대한 개념도 잡히고, 지출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생각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고 헛된 소비에는 망설일 줄 아는 사람을 바람직한 소비인간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명확한 자기분석'으로 하위범주화 하였다.

· 한 달 동안 물 쓰듯 소비하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반성도 많이 하게 되었구요.

· 이계기로 헛된 소비에는 망설이고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어디에 가장 많은 지출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만족도와 중요도를 표시하면서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성향이 있구나..반성도 할 수 있었습니다!

· 잘못된 소비의 원인을 밝히고 올바른 소비를 통해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소비를 한 것 같아요.

· 채팅방에 참여를 하진 못했지만 혼자 미션을 수행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습관을 가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된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이 자기모습을 보고 반성하고 원인을 밝히려는 행위과 결과를 '돈쓰는 나'로 하위범주화 하였다.

· 그냥 했던 지출이생각하는 지출로 바뀔 수 있게 되었어요. 무조건 안 쓰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더라구요. 항상 행복이라는 가치를 가까이하고 싶습니다.

· 이 계기로 헛된 소비에는 망설이고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객관적인 나를 돌아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소비를 한 것 같아요.

· 저에게 다양한 소비유형이 있었고 어떻게 해야 절제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 나는야..충동끝판 왕..ㅠㅜ이렇게 정리해보니..충동소비의 대마왕이었어요ㅠㅜ

· 영수증으로 나의 소비패턴과 지출 내용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소비에 대한 만족감이 어느 정도였는지 되돌아 볼 수 있었다.

· 잘못된 소비의 원인을 밝히고 올바른 소비를 통해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 만족도 중요도 표시하면서 충동구매성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결국 지출파악을 통해 나의 모습을 알게 되는 과정을 '자기돌아봄'으로 하위범주화 하였다.

(15) 소비자신감

연구 참여자들은 체계적인 지출과정을 통해 소비를 추억할 수 있는 등 소비자로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과정을 갖게 되었다.

· 1주차미션을 하면서 쇼핑지출이 많은 거 같아 자제했더니, 지출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 가계부를 작성하면서 소비패턴을 알겠네요. 거진 움직이는 동선대로 소비가 일어나네요. 다음 달엔 더 분발해 보려구요

· 확실히 저번 주 보다는 구매 내역이 줄었습니다^^

· 저번 주는 정말 행복한 지출뿐이었던 것 같아요!

· 꼭 필요한곳에만 지출을 해서 뿌듯하네요^^

· 저는 오늘 현명한 소비하러 다녀오겠습니다.

위와 같이 '저는 오늘 현명한 소비하러 다녀오겠습니다' 와 같은 자신감을 '소비관리 자신감' 로 하위범주화 하였다.

· 어떤 지출을 할 때 만족이 좋았는지 어디서 지출충동을 억누를 수 있었는지 알 수 있던 시간이었고 값진 경험 이었습니다.

· 아주 소중하고 즐거운 지출을 했어요^^

· 핫도그는 딸아이가 먹고 싶다 해서 어쩔 수가 없었네요 ㅋㅋ

· 도너츠.:ㅋㅋㅋㅋ한주 고생한 저에게 주는 선물이라 상 ! 입니다 ^ ^ ㅋㅋㅋㅋㅋㅋ

· 네 만족도를 체크해보니 소비 당시 기분을 다시 떠올려볼 수 있었어요.

· 저번 주는 정말 행복한 지출뿐이었던 것 같아요!이렇게 다시 돌아보면서 행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도 감사 해요!

· 출근길 기차를 기다리며 집어먹는 어묵은 말로표현 할 수 없을 만큼 맛있었네요.

· 정말 즐거운 추억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소비를 추억할 수 있다는 것을 '소비추억' 으로 하위범주화 하였다.

(16) 자기성장

연구 참여자들은 지출체험에서 부수적으로 경제지식이나 돈사용에 대한 개념이나 나의 행복이 사회적인 도움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도 경험하게 되었다.

· 경험을 통해 경제관념에 대해 공부하고자 했습니다. 매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만족도 중요도 평가 등 중요한 개념 배워갑니다^^

· 이번 참여로 인해 돈의 사용과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아 좋았습니다.

· 좋은 기회였습니다. 감사해요. 누가 자신의 소비에 관심을 가지고 멘토 해 주시는 건 새롭고 자극이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 배울게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4주 동안 너무 많은 걸 배웠습니다. 매주 마다 돈을 허투루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미션이 없더라도 영수증을 모아 주말마다 정리하는 것은 좋은 습관인거 같습니다^^

· 영수증으로 나의 소비패턴과 지출 내용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소비에 대한 만족감이 어느 정도였는지 되돌아 볼 수 있었다.

위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경제관념, 만족도와 중요도 개념 및 멘토링을 통해 내가 성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를 '공부'라고 하위범주화 하였다.

2) 근거자료의 범주화

본 연구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로 온라인 지출관리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원 자료를 개방코딩 작업을 실시하여 <표 Ⅳ-1>과 같이 분석하였다. 원자료를 줄 단위로 분석한 결과 총 162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다시 공통되거나 유사한 개념을 묶어서 25개의 하위범주를 구성했으며, 하위범주에서 공통되거나 유산한 내용을 묶어서 16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개념을 범주화하면서 추상화된 근거를 각 하위범주마다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표 Ⅳ-1> 개방코딩: 자료의 범주목록

개념	하위범주	범주
· 항상 인터넷으로만 구매하니까 영수증에 대해 소홀해짐 · 소액영수증을 버려달라고 했었음 · 자동이체 된 내역이 훨씬 많았음 · 영수증 받기 습관이 안 되었음	영수증 없는 소비	영수증 무시

개념	하위범주	범주
· 영수증을 모아야하는 부담 때문에 소비를 맘껏 못함 · 지출한 영수증이 생각보다 많았음 · 지출금액이 찍힌 영수증을 보면서 소비에 신경을 쓰게 됨 · 영수증 보면서 나는 돼지인가 고민했음 · 모아진 영수증을 한 번에 보니 뜨끔함 · 영수증 너무 많이 모았음, 다음 주에는 영수증이 줄었으면 좋겠음	신경 쓰이는 영수증	영수증 바라 보기
· 누가 내 소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멘토 해 주신 것 새롭고 자극이 됨 · 다양한 콘텐츠들 좋아요 · 청년들 프로그램이 생겨서 참여할 수 있어서 뜻깊은 경험함 · 소비습관도 돌아볼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준 것이 좋았음 · 유용하고 실용적인 이러한 작은 정책들을 통해 삶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시길 바람 ·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되었음 · 소중한 경험 좋은 습관 선물 감사 · 값진 경험 · 재미있었고 좋았음 · 정말 행복했던 지출이었고 다시 돌아보고 행복했다고 생각하는 기회가 생겨서 감사함 · 즐거운 추억	값진 경험	체험 기회

개념	하위범주	범주

· 나의 지출내역을 파악함 · 짧은 시간이지만 소비지출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음 · 지출내용을 한 번 더 보게 되었음 · 이번 주는 군것질을 많이 한 것 같음 · 저번 주 보다 구매내역이 줄었음 · 지난 주 보다 지출이 많았음	**지출 돌아보기**	**지출 파악**
· 가계부 어플을 쓰고 있고 지출내역을 빠짐없이 적었음 · 앞으로도 가계부 습관을 들여야 하겠음 · 가계부를 쓰고 있지만 미션하면서 돈을 아껴 써야겠다는 생각을 팍팍 함 · 지출기록을 하면서 필요 없는 지출을 많이 줄였음 · 지출내역 정리하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됨	**지출 기록하는 가계부**	

개념	하위범주	범주
· 못 받은 영수증은 포스트잇에 지출기록 했음 · 소액영수증 두 번이나 못챙겨서 아쉬웠고 포스트잇으로 기록했음 · 영수증 모으는 습관을 들여 소비할 생각임 · 영수증 없이 쓰는 돈이 많으니 돈 쓰는 자각을 덜하게 됨 · 영수증 모으기 신선했음	**영수증에 대한 긍정적 태도**	**영수증 의미 파악**
· 가계부를 작성하면서 소비패턴을 알았음 · 평소 가계부를 이용하지만 새로운 방법이 너무 의미있고 좋았음 · 만족도나 중요도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임, 가계부작성 느낌이 다름 · 평소 가계부를 이용하지만 새로운 방법이 너무 의미있고 좋았음 · 단순히 수입지출내역 기록보다는 만족도 체크하는게 필요함 · 만족도나 중요도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임, 가계부작성 느낌이 다름 · 단순히 수입지출내역 기록보다는 만족도 체크하는게 필요함 ·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어서 좋음	**새로운 가계부**	**가계부의 미 파악**

개념	하위범주	범주
· 지출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 · 지출기록을 해야해서 돈쓸 때 더 의식함 ·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 · 결제할 때 올바른 소비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됨 ·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좋은 경험이었음 · 귀찮지만 지출을 보고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었음	**한 번 더 생각**	**한 번 더 생각하는 지출**
· 생각하고 구매하는 습관이 생겼다 기분좋음 · 생각하면서 돈을 쓰게 되어 좋았음 ·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어서 쓸 때마다 생각하고 지출함 · 생각없이 쓰던 것 들이 너무 많아서 놀람, 계획적이고 신중하게 소비하려고 마음 먹음 ·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함 · 소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였음 · 소비지출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기회 · 그냥 했던 지출이 생각하는 지출로 바뀜 · 새로운 경험을 통해 소비에 대해 많은 생각하게 됨 · 의미있는 지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함	**생각하는 지출**	
· 지난주에 카드 많이 써서 이번 주는 자제했음 · 이번 주는 아껴보려고 해서 아껴봤음 · 돈을 많이 쓰고 있었고 영수증 모아서 체크해야겠다고 생각함 · 체험기간 동안 매주 마다 돈을 허투루 쓰지 않게 됨 · 만족도가 낮은 것에는 소비충동을 억누를 수 있었음 · 좀 더 지혜롭게 돈쓰기 위해 항상 신경써야하겠음	**지출억제**	**지출 통제**
· 돈 안 쓰려고 노력했는데 그래도 이것저것 썼음 · 예상치 못했던 경조사가 생겨서 지출이 생겼음 · 요가학원 연장하느라 지출이 큼 · 지난주보다 아끼려 했는데 안됐음	**어려운 지출통제**	

· 내가 어디에 썼는지 알게 되었음 ·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음 · 만족도와 중요도를 통해 소비효율성을 생각해보았음 · 어디에 가장 많은 지출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었음 · 소비는 늘 주말에 몰려 있음 · 일주일에 돈이 이만큼 빠져나간다는 것을 알았음 · 줄일 수 있는 군것질거리 들이 꽤 많다 · 미션을 하면서 그동안 과소비를 한 것을 알게 됨 · 일주일 매일 돈을 썼는데 이번 주는 3일밖에 돈을 안 썼음 · 지출억제를 못한 것 같음, 계획에 없던 지출이 생긴 것을 알았음	**지출분석**	
· 나한테 돈쓰는 건 아깝지 않음, 남에게 쓰는 돈이 쉽지 않음 · 가고 싶지 않는 자리 억지로 갔더니 밥도 맛없고 만족도가 낮음	**지출환경 분석**	
· 나의 소비패턴과 지출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었음 · 내 소비습관과 패턴을 익히게 되는 기회였음 · 소비스타일을 알 수 있는 것 같음 · 소비패턴이 어떤지 알 수 있었고 절약해야겠다는 생각 듦 · 소비패턴도 보고 낭비와 아낄 수 있는 비용은 뭔지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임 · 소비패턴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 · 소비패턴을 돌아봄 · 소비패턴을 보게되어 문제점을 고칠 수 있었음 · 소비패턴을 분석할 수 있어서 만족함 · 소비패턴을 파악할 수 있었고 알게 모르게 나가던 자잘한 지출을 잡아주었음 · 야근을 많이하니 소비패턴이 단조롭고, 소비패턴이 단조로워서 만족도가 낮음 · 저의 소비패턴을 처음으로 마주할 수 있었음 · 저의 지출패턴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음 · 평소 소비패턴을 되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	**소비패턴 파악**	**소비 패턴**
· 굳이 안 먹어도 되는 술을 먹어서 만족도는 중	**만족도**	**지출**

· 선물로 준비한 아기 수면잠옷도 만족함 · 소중하고 즐거운 지출을 했음 · 커피는 줄일 수 있는 소비라 하 로 평가함 · 택시만족도 상이다. 기차를 한 시간 덜 기다렸으니까? · 한 주 고생한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 도너츠 만족도는 상 · 핫도그를 딸아이가 먹고 싶어서 사줬음 · 먹는 지출이 만족도가 높음 · 먹는거는 항상 만족도 좋았음 · 출근길 기차를 기다리면서 먹은 어묵은 맛있었음	**평가**	**이해력**
· 지출을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되어 좋았음 · 불필요한 곳에 지출을 하였고, 불필요한 부분은 지출자제를 해야 겠음 · 움직이는 동선대로 소비가 일어남을 발견 · 덜 쓰는 방법을 찾게 되었음 · 일만하느라 돈 쓰는 일이 별루 없었음 · 무조건 안 쓰는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항상 행복이라는 가치를 가까이 하고 싶어짐	**지출이해**	
· 아내가 작은 선물에도 기뻐하니 기분이 참 좋음 · 여자친구를 만나 절제하지 못하고 돈을 썼음 · 아내와 논의하여 만족도 중요도 높은 소비를 만들어가야겠다 · 많이 대접받아서 지출이 적었음 · 밥을 사주는 분이 많았음 · 좋은 사람들과 시간보내면 생각지 못한 돈을 쓴다 그래도 좋다	**관계지출**	**관계 지출**
· 신용카드 없애려고 마음먹었고, 월급받자마자 신용카드 대금부터 갚았음 · 신용카드는 당장 돈이 안 나가니까 마구 긁게 됨 · 신용카드는 혜택범위 안에서 쓰고, 큰 금액을 할부할 때 신용카드를 씀 · 카드를 쓰면 돈이 안나간다 생각함, 카드를 마구 긁게 됨, 월급날에 돈이 없는지 알게 되었음 · 체크카드는 잔액이 표시되니까 필요한 것에만 돈을 쓰게 됨	**신용카드 사용유혹**	**신용 카드 사용 기준**
· 다시 한 번 아껴 쓸 수 있는 계기가 됨	**지출**	**절약**

· 체계적인 가계부로 정리하니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지 알게 됨 · 지출기록을 하면서 필요 없는 지출을 많이 줄였음 · 돈을 더 아껴야겠다고 생각함 · 가계부를 쓰고 있지만 미션하면서 돈을 아껴 써야겠다는 생각 팍팍 함 · 불필요한 지출에 대해 생각하고 줄일 수 있었음 · 쇼핑지출이 많은 것을 확인했고 쇼핑지출을 자제했더니 지출이 줄었음 · 사두었던 재료들로 집들이 준비를 해서 비용이 줄었음 · 외식을 줄였음	**줄이기**	

개념	하위범주	범주
· 간식은 안 먹는 편이고 술을 좋아해서 모임과 지출이 많음, 급 결정된 모임에 참석하는 건 줄이도록 노력해야 겠음 · 어떤 지출에서 만족이 좋았는지 어디서 지출충동을 억누를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었음 · 지출을 알고 정리하게 되니 불필요한 지출이 적어져서 너무 행복했음 · 지출에 대한 개념도 잡히고, 지출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생각 할 수 있게 된 계기임 · 돈은 내가 쓰고 만족하면 된다.(실제로) · 일만하느라 돈쓸시간이 없었음, 돈을 안 써서 다행이나 돈을 안 써서 한편으론 씁쓸함 · 헛된 소비에는 망설이고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음	**명확한 자기분석**	**자기 성찰**
· 돈을 흥청망청 쓰고 있음을 알았음 · 물 쓰듯 소비하는 제 모습을 봄, 그리고 반성함 · 잘못된 소비의 원인을 밝히고 올바른 소비를 통해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됨	**돈쓰는 나**	
· 객관적인 나를 돌아보는 좋은 시간이었음 ·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소비를 한 것 같음 · 저에게 다양한 소비유형이 있었고 어떻게 해야 절제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었음	**자기 돌아봄**	

· 이렇게 정리해보니 나는 충동 끝판왕이었음 · 제 소비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음 · 소비에 대해 반성하고 좋은 계기였음 · 만족도 중요도 표시하면서 충동구매성향을 알게되었음		
· 소비평가하는 유익한 시간,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임 · 필요한 곳에만 돈을 써서 뿌듯함 · 저는 오늘 현명한 소비하러 다녀오겠습니다. · 소비생활에 대해 알게되고 쓸데없는 소비에 반성하는 유익한 경험	**소비관리 자신감**	**소비 자신감**
· 소비에 대한 만족감이 어느 정도 였는지 되돌아봄 · 만족도 체크하면서 소비당시 기분을 다시 떠올려 볼 수 있었음	**소비추억**	
· 경험을 통해 경제관념 공부함 · 만족도 중요도평가 등 중요한 개념 배움 · 돈의 사용과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음	**공부**	**자기 성장**

2. 축코딩

1) 패러다임 범주화

축코딩은 범주나 하위범주들을 코딩 패러다임에 따라 관계를 짓는 것이다(박성희, 2005)[46]. 자기성찰형 지출관리체험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자기성찰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개념과 범주들을 탐색하고 재조합하여 현상들을 패러다임 모형으로 연결하였다. 앞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Strauss & Corbin(1998)[47]의 패러다임 모형에 근거하여 지출파악하기 체험과정에서 경험하는 사건을 통해 의식과 행동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지출파악”을 중심현상으로 보고 원인이 되는 인과적 조건과 중심현상을 만들게

46) 박성희,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원미사, 2005).

47) Strauss, A., and Corbin, J. (1998).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 Thousand Oaks, CA, US:Sage Public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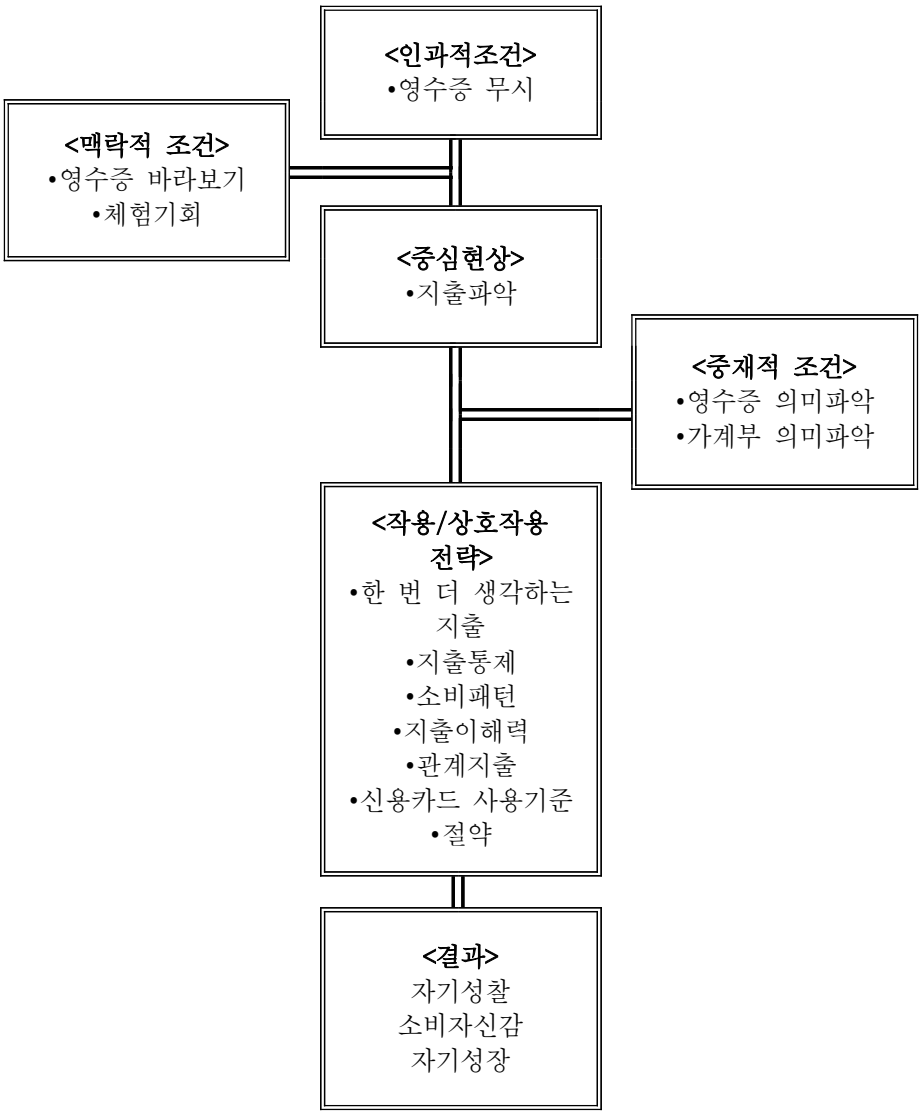
하는 맥락적 조건을 파악한다. 또 중심현상을 중재하는 중재적 조건과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다양한 조건들의 작용과 상호작용들이 맥락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파악 할 수 있다. 축코딩을 통한 본 연구의 상세한 내용은 <표 Ⅳ-2>과 같다.

<표 Ⅳ-2> 근거이론 패러다임의 범주화

패러다임요소	범주	하위범주
인과적 조건	영수증 무시	영수증 없는 소비
맥락적 조건	영수증바라보기	신경쓰이는 영수증
	체험기회	값진 경험
중심현상	지출파악	지출 돌아보기
		지출기록하는 가계부
중재적 조건	영수증의미파악	영수증에 대한 긍정적 태도
	가계부의미파악	새로운 가계부
작용/상호작용 전략	한 번 더 생각하는 지출	한 번 더 생각
		생각하는 지출
	지출통제	지출억제
		어려운 지출통제
		지출 분석
		지출환경 분석
	소비패턴	소비패턴 파악
	지출이해력	만족도평가
		지출이해
	관계지출	관계지출
	신용카드 사용기준	신용카드 사용유혹
	절약	지출 줄이기
결과	자기성찰	명확한 자기분석
		돈쓰는 나
		자기 돌아봄
	소비자신감	소비관리 자신감
		소비추억
	자기성장	공부

2) 패러다임 모형

본 절에서는 개방코딩의 16개 범주를 패러다임 모형에 재배열하였다. <그림 Ⅳ-1>은 각 범주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Ⅳ-1> 지출파악하기 실행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1)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Casual Condition)은 어떤 현상을 초래하거나 촉진시키는 일련의 일과 사건을 말한다(Strauss & Corbin, 1998)[48]. 원자료의 분석을 통해 “지출파악”이라는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조건은 “영수증 무시”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신용카드(체크)나 자동이체 등 거래내역이 기록되는 전자상거래상황에서 굳이 관리가 불편한 종이영수증을 받을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영수증을 단지 거래내역과 금액이 표기된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이체 된 내역이 훨씬 많았고 항상 인터넷으로만 구매하니까 영수증에 대해 소홀했다. 또한 영수증 받기 습관이 안 되어 소액영수증을 버려달라고 했었다. 이러한 인과적 조건은 다음과 같은 속성과 차원으로 분석되었다.

<표 Ⅳ-3> 인과적 조건(범주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영수증 무시	정도	약함-강함

(2)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은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문제들을 만들어 내는 특수한 조건들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다루고 조절하고 수행하며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지는 구체적 조건이다(Strauss & Corbin, 1998)[49]. 본 연구에서 맥락적 조건은 “영수증 바라보기”와 “체험기회”이다. “영수증 바라보기”와 “체험기회”를 맥락적 조건으로 본 이유는 무관심하고 무시했던 영수증을 외부에서 제공된 “체험기회”를 통해 영수증을 바라보는 경험을 시작했다는 것은 연구 참여자가 지출파악하는 과정에서 자기성찰을 진행하는데 충분한 맥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은 다음 표와 같다.

48) Strauss & Corbin(1998), 앞의 책.
49) Strauss & Corbin(1998), 앞의 책.

<표 Ⅳ-4> 맥락적 조건(범주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영수증 바라보기	반응	민감함-둔감함
체험기회	태도	소극적-적극적

(3) 중심현상

중심현상은 '여기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 혹은 참여자들이 겪는 주된 문제로 일련의 작용과 상호작용에 의해 조절되는 생각이나 사건이다(Strauss & Corbin, 1998)[50]. 본 연구에서의 중심현상은 "지출파악" 하는 것이다. 지출을 파악한다는 것은 지출후 결과를 살펴보는 것을 시작으로 지출을 결정하게 된 계기를 돌아보는 과정이다. 지출을 결정하고 지출 후 결과에 대한 만족상태를 느끼는 자기의 정체성은 지출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관계를 성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연구 참여자들이 가계부에 대해 지출기록을 꼼꼼히 하는 것부터 지출내역을 통해 지출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필요 없는 지출을 파악하고, 지출내용을 한 번 더 보게 되거나 어떤 부분에서 지출이 많았다는 등 객관적으로 자신의 지출을 파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음 표는 중심현상의 속성과 차원이다.

<표 Ⅳ-5> 중심현상(범주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지출파악	태도	소극적-적극적

(4)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맥락적 조건 내에서 지출파악하기 체험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중심현상을 해결하거나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51]. 본 연구에서는 "지출파악"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위해

50) Strauss & Corbin(1998), 앞의 책.
51) Strauss & Corbin(1998), 앞의 책.

서 다양한 중재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중심현상에 대한 중재적 조건은 “영수증 의미파악”과 “가계부 의미파악”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소액 영수증을 두 번이나 못 챙겨서 아쉬웠고, 영수증 없이 쓰는 돈이 많으니 돈 쓰는 자각을 덜하게 됨을 알게 되었고 영수증에 대한 신선한 느낌과 긍정적인 생각을 발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체험을 통해서 단순히 수입지출을 기록하는 가계부가 아닌 지출의 만족도와 중요도를 평가하는 새로운 가계부가 좋고 필요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표 Ⅳ-6> 중재적 조건(범주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영수증 의미파악	태도	소극적-적극적
가계부 의미파악	태도	소극적-적극적

(5)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문제 쟁점을 다루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지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행위이다(Strauss & Corbin, 1998)[52]. 이를 통해 현상을 조절하고 처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의 중심현상의 결과를 높이기 위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한 번 더 생각하는 지출”, “지출통제”, “소비패턴”, “지출이해력”, “관계지출”, “신용카드 사용기준”, “절약”이라는 전략을 세웠다. 연구 참여자들은 결제할 때 올바른 소비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되었고,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좋은 경험이었고, 귀찮지만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고 평가한다. 만족도가 낮은 것에는 소비충동을 억누를 수 있었고, 좀 더 지혜롭게 돈쓰기 위해 항상 신경써야하겠다고 생각한다. 소비는 늘 주말에 몰려 있고 어디에 가장 많은 지출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었다는 등 연구 참여자들이 자기의 지출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지출통제를 하게 되었다. 지출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아내와 친구들 관계에서 발생하는 소비지출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52) Strauss & Corbin(1998), 앞의 책.

서 생기는 불편함을 파악하거나 이러한 모든 지출과정을 이해하는 힘이 생기면서 결국 절약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특히 본인들만의 일정한 소비패턴이 있음을 알게 된 것은 향후 지출계획하기 과정에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표 Ⅳ-7> 작용/상호작용 전략(범주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한 번 더 생각하는 지출	태도	소극적-적극적
지출통제	정도	약함-강함
소비패턴	체계성	체계적-비체계적
지출이해력	정도	약함-강함
관계지출	정도	약함-강함
신용카드 사용기준	체계성	체계적-비체계적
절약	정도	약함-강함

(6) 결과

결과는 중심현상에 대응하고 조정하기 위해 취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직접적 또는 구체적인 산물을 말한다(Strauss & Corbin, 1998)[53]. 연구 참여자들이 “지출파악”이라는 현상은 중재적 조건의 영향을 받아 “자기성찰”, “소비자자신감”, “자기성장”이라는 결과로 발전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지출체험과정에서 어떤 지출에서 만족이 좋았는지 어디서 지출충동을 억누를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었고, 지출을 알고 정리하게 되니 불필요한 지출이 적어져서 너무 행복했고, 지출에 대한 개념도 잡히고, 지출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생각 할 수 있게 되는 등 돈을 쓰고 있는 나를 통해서 명확하게 자기를 분석하고 성찰하게 되었다. 소비에 대한 만족감이 어느 정도였는지 되돌아보거나, 만족도 체크하면서 소비당시 기분을 다시 떠올려볼 수 있을 정도의 여유 있는 소비자로서 자신감이 있는 모습도 나타났다. 연구

53) Strauss & Corbin(1998), 앞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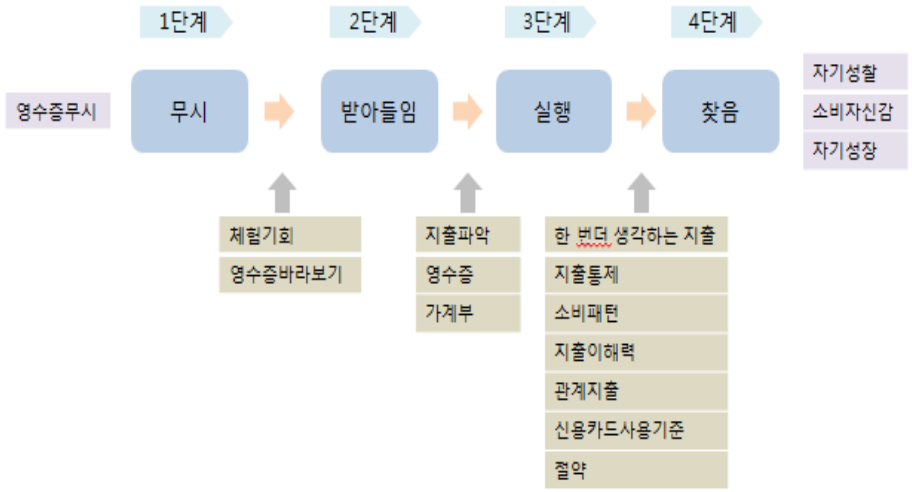
참여자들은 지출체험에서 부수적으로 경제지식이나 돈 사용에 대한 개념을 공부한 것 이상으로 누가 내 소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멘토해 주신 것을 새롭고 자극이 된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이런 프로그램이 생겨서 참여할 수 있어서 뜻깊은 경험을 하고 좋았다는 등 나의 행복이 사회적인 도움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결과의 속성과 차원은 다음 표와 같다.

<표 Ⅳ-8> 결과(범주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자기성찰	정도	얕음-깊음
소지자 자신감	정도	약함-강함
자기성장	관계	경직됨-유연함

3) 과정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자기성찰형 지출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영수증 무시” 라는 현상 이후를 4단계의 과정으로 구분하여 고찰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시단계로 연구 참여자들이 지출관리에서 필요한 영수증에 관한 무관심 무시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받아들임 단계이다. 체험기회를 통해 영수증을 바라보기를 시작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실행 단계이다. 지출관리에 대한 새로운 도구를 통해서 자기의 지출을 구체적으로 진실하게 파악해가는 과정이다. 네 번째 단계는 찾음 단계이다. 지출관리과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소비패턴을 발견하고 향후 지출계획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단계이다. <그림 Ⅳ-2> 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 Ⅳ-2> 지출파악하기 체험에 대한 과정분석 모형.

(1) 무시 단계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지출관리에서 영수증에 대한 의미를 무시한다. 카드나 자동이체 등 전자상거래방식이 보편화되면서 거래 증거로서의 영수증의 역할이 축소된 까닭이다. 소비자는 문제가 되는 거래에 대한 증거를 현금영수증내역, 은행거래내역서, 카드회사 등에 저장된 기록으로 안전하게 언제든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들도 이러한 이유로 영수증에 대해 소홀해지거나, 소액영수증을 버려달라고 하는 등 영수증 받기 습관이 안 되거나 사라진 경우이다.

(2) 받아들임 단계

연구 참여자들은 지출관리 체험에 스스로가 참여하지만 첫 번째 미션인 '영수증 모으기' 에 앞선 단계처럼 무시하기도 하지만 점차로 영수증 속에 거래내역 뿐만 아니라 지출을 결정하는 계기나, 금액이 기준보다 초과되거나, 부정적인 결과가 연상되는 등 숫자기록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가 숨어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 영수증을 모아야하는 부담 때문에 소비를 맘껏 못하거나, 지출금액이 찍힌 영수증을 보면서 소비에 신경을 쓰게

된다거나 영수증 보면서 나는 돼지인가 고민하기도 하고, 모아진 영수증을 한 번에 보니 뜨끔함을 느낀다. 그러면서도 다음 주에는 영수증이 줄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으로 다음 미션을 실행한다.

(3) 실행 단계

연구 참여자들은 지출관리 체험에 스스로 선택해서 참가하지만 모두가 성실하게 참여하지는 못한다. 영수증 모으기 미션을 보는 즉시 중단하기도 하고 2주차에 멈추는 참여자도 많다. 그러나 성실한 다수의 참여자들은 영수증을 모으는 과정에서 에서 영수증 없이 쓰는 돈이 많으니 돈 쓰는 자각을 덜하게 됐다거나, 소액영수증 두 번이나 못 챙겨서 아쉬웠고, 영수증 모으기 미션이 신선했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다음으로 지출을 기록하는 과정도 지출관리 기본행위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지출결과에 대해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이미 식상한 경험이다. 단순하게 수입과 지출 내역을 기록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던 것이다. 지출을 기록하고 지출에 대한 만족도를 스스로 평가하고 중요함과 급함으로 지출성격을 규정하는 새로운 가계부기능을 알게 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지출파악을 역동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평소 가계부를 이용하지만 새로운 방법이 너무 의미 있고 좋다. 가계부를 작성하면서 소비패턴을 알았다. 평소 가계부를 이용하지만 새로운 방법이 너무 의미 있고 좋았다. 만족도나 중요도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데 가계부 작성 느낌이 다르다.

(4) 찾음 단계

연구 참여자들은 자기성찰을 하고 소비에 대한 자신감을 통해 성장해간다. 다음과 같은 성찰이 있다.

- 간식은 안먹는 편이고 술을 좋아해서 모임과 지출이 많음, 급 결정 된 모임에 참석하는 건 줄이도록 노력해야 겠음.
- 어떤 지출에서 만족이 좋았는지 어디서 지출충동을 억누를 수 있었는 지 알 수 있었음.
- 지출을 알고 정리하게 되니 불필요한 지출이 적어져서 너무 행복했음.

- 지출에 대한 개념도 잡히고, 지출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생각 할 수 있게 된 계기임.
- 돈을 흥청망청 쓰고 있음을 알았음.
- 물 쓰듯 소비하는 제 모습을 봄, 그리고 반성함.
- 잘못된 소비의 원인을 밝히고 올바른 소비를 통해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됨.
- 객관적인 나를 돌아보는 좋은 시간이었음.
-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소비를 한 것 같음.
- 저에게 다양한 소비유형이 있었고 어떻게 해야 절제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었음.

3. 선택코딩

1) 핵심범주

연구 참여자들이 지출파악경험을 모두 통합하는 핵심범주는 “자기성찰형 지출파악을 통해 진정한 기쁨이 있는 소비지출을 알게 되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 지출관리의 필요성을 알지만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출관리를 할 기회와 방법이 없었다. 오히려 ‘소액영수증은 버려주세요’ 하는 등 지출에 대한 무관심으로 지출관리를 하는 모습이다. 어쩌면 소득이 적은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싫었을 수도 있다. 이런 심리정서적인 모습은 체험과정에서 정확히 구체적으로 표현된 사례는 없었지만 일상적인 돈 관리모습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앞에 소개한 것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3년 동안 1,0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이고 소득이 가구평균에서 상대적으로 높지 않는 편에 속한다. 돈 관리에서 소득이 적은 경우는 많은 경우에 비해 용이하지 않다. 지출배분에 더 구체적이고 정밀해야한다. 더 신경을 써야한다는 사실을 돈 관리 훈련이 안된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 요인이다. 오히려 많은 돈을 배분하는 것이 더 어려운 과정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행복으로 즐거운 일로 받아들인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경기도 일

하는 청년통장 참여자들에게 체계적인 4주간의 지출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체험과정에서 외부개입을 최소화하여 자기성찰과 결정기회를 보장하였다. 결과적으로 체험참가자들은 “자기성찰과 기쁨이 있는 소비”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2) 이야기 윤곽

이야기 윤곽(story line)은 추상적으로 표현된 핵심범주의 내용을 일련의 이야기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다(Strauss and Corbin, 1998). 요즘 청년의 또 다른 이름은 N포세대(N抛世代)다. 삼포세대[54]로 시작된 신조어이다. 연애, 결혼, 출산 3가지를 포기한 삼포세대에 더하여, 집과 경력 그리고 희망/취미와 인간관계를 포함하는 7포세대를 말하기도 한다.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이름이다. 경기도에서는 2016년부터 저소득 일하는 청년에게 3년 후 약 1,000만원의 자산을 적립해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일하는 청년에게 근로의지와 취업의지를 고취하는 청년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기본적인 경제적 환경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고 일하고 있으며 연령대는 만18세 이상이고 34세 이하이다. 소득기준은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2018년 기준) 1인가구는 1,672,000원이하 소득자이다. 정리해보면 연구 참여자들은 본인 소득이 높은 편이 아니고 가족들의 경제수준 또한 풍족하다고 볼 수 없는 소득생활자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스스로 지출관리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처음 실행하는 미션이 ‘영수증 모으기’이다. 영수증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태도는 무관심이나 무시이다. 거래과정에서 이런 행동은 충분히 합리적이다. 문제가 되는 거래에 대한 증거를 현금영수증내역, 은행거래내역서, 카드회사 등에 저장된 기록으로 안전하게 언제든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영수증이 죽은 종이기록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삶의 모습이 담겨있음을 바라보게 된다. 영수증을 모아야하는 부담 때문에 소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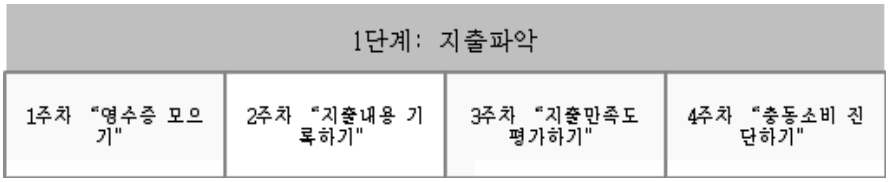
54) “20~30대 10명중 4명 "나는 삼포세대"”, 아시아경제, 2012년 2월 1일.

맘껏 못하거나, 지출금액이 찍힌 영수증을 보면서 소비에 신경을 쓰게 된다거나 영수증 보면서 나는 돼지인가 고민하기도 하고, 모아진 영수증을 한 번에 보니 뜨끔함을 느낀다.

다음으로 지출을 기록하는 미션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지루해 하지만 지출에 대한 만족도를 스스로 평가하고 중요함과 급함으로 지출성격을 규정하는 새로운 가계부기능을 알게 되면서 역동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평소 가계부를 이용하지만 새로운 방법이 너무 의미 있고 좋다. 가계부를 작성하면서 소비패턴을 알았다. 평소 가계부를 이용하지만 새로운 방법이 너무 의미있고 좋았다. 만족도나 중요도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데 가계부 작성 느낌이 다르다는 소감을 말한다. 어떤 지출에서 만족이 좋았는지 어디서 지출충동을 억누를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었고, 지출을 알고 정리하게 되니 불필요한 지출이 적어져서 너무 행복했고, 잘못된 소비의 원인을 밝히고 올바른 소비를 통해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객관적인 나를 돌아보는 좋은 시간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4주간의 자기성찰형 지출관리 체험프로그램에서 자기성찰을 하고 소비에 대한 자신감을 통해 성장해가는 모습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었다.

4. 소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통장사업의 후속관리로 실행된 “자기성찰형 지출관리”를 통해 체득한 ‘자기개념 명료성’과 ‘소비자자신감’이 향후 3년 동안 1,000만원을 성공적으로 적립하기 위한 근로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다음으로 3년 후 형성된 자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임을 확인해보려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기성찰형 지출관리 체험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청년통장가입자 59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자기성찰형 지출관리 중 1단계 지출파악하기 체험프로그램은 아래 <그림 Ⅳ-2>와 같이 4주간의 미션을 실행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Ⅳ-2> 지출파악하기 4주 주차별 구성.

연구자는 체험 참여자들의 체험과정에 대한 자기평가 자료를 수집하였고 질적 연구방법 중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원자료를 개방코딩하여 162개의 개념을 구성하였고, 공통성과 유사성이 있는 개념들을 묶어서 다시 25개의 하위 범주로 구성하였다. 하위범주 중에서 공통성과 유사성을 다시 묶어서 16개의 개념을 범주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이 구성된 16개의 범주를 패러다임 모형에 의해 재배열하였다. 그 결과 "지출파악"이라는 범주가 중심현상으로 나타났다.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친 인과적 조건은 "영수증 무시"로 나타났다. 맥락적 조건은 "영수증 바라보기", "체험기회"로 나타났다. 중재적 조건은 "영수증 의미파악", "가계부 의미파악"이라는 범주가 나타났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한 번 더 생각하는 지출", "지출통제", "소비패턴", "지출이해력", "관계지출", "신용카드 사용기준", "절약"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직접적 또는 구체적인 산출물인 결과는 "자기성찰", "소비자자신감", "자기성장"으로 구성되었다.

과정분석에서는 지출파악하기 체험 과정에서 나타난 "영수증 무시"라는 현상이 발현된 이후의 연구 참여자들은 무시 단계, 받아들임 단계, 실행단계, 찾음 단계라는 4가지 단계를 경험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영수증의 의미를 무시한다. 영수증에 대해 소홀해지거나, 소액영수증을 버려달라고 하는 등 영수증 받기 습관이 안 되거나 사라진 경우이다. 두 번째 단계는 받아들임 단계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영수증 속에 거래내역뿐만 아니라 지출을 결정하는 계기나, 금액이 기준보다 초과되거나, 부정적인 결과가 연상되는 등 숫자기록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가 숨어있다

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 세 번째 단계는 실행 단계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영수증과 지출기록의 새로운 의미를 알게 되면서 지출 파악을 역동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네 번째 단계는 찾음 단계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기성찰을 하고 소비에 대한 자신감을 통해 성장해간다.

최종적인 과정 분석결과에 의해 도출된 지출파악하기 경험에 대한 핵심범주는 '자기성찰형 지출파악을 통해 진정한 기쁨이 있는 소비지출을 알게 되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체험참가자들은 '자기성찰과 기쁨이 있는 소비'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자산형성지원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경우에도 자산지원의 효과와 함께 부수적으로 지출관리과정에서 자기를 알게 되고 결국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속적으로 자립적인 경제생활기술을 향상해 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Ⅴ. 논의 및 결론

1. 논의

연구자는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지출관리 경험에서 나타난 성과와 문제를 개인과 조직 · 정책적 차원에서 논의하려고 한다. 개인적 차원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자기개념을 명료화하면서 지출에 대한 관리자신감을 향상하였고, 가계부작성 등 합리적인 지출관리방법을 배우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청년들에게 이런 사업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조직적 차원 및 정책적 차원에서는 금융재무교육과 지출관리프로그램 개발과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현장의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들에게 금융재무 및 지출관리역량을 지원함으로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거시적 정책대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1) 개인적인 측면

연구 참여자들은 자기성찰형 지출관리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4주간의 지출파악하기 과정을 체험하였다. 자기가 소비한 지출을 파악하면서 자기개념을 명료화 할 수 있었고 돈을 지원해줄 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실용적인 프로그램까지 제공하는 것에 대해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성과와 문제를 다음과 같이 논의해 본다.

첫째, 청년들은 지출관리체험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 2017년 최초 계획은 청년통장참여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출관리체험 프로그램을 실행할 계획이었다. 100명으로 참여인원을 한정한 이유는 청년들은 지출관리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관담당자들의

막연한 생각들 때문이었다. 돈을 지원받아야하는 가구로 선정된 것만으로도 감수성 예민한 청년들은 상처받았을 수 있는데, 적극적인 재테크도 아니고 지출관리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더욱 기분 나빠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기획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지출관리체험에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는 문자홍보 후, 단 30분 만에 500여명이 참여 신청을 하게 되는 예상 밖의 결과가 발생하였었다. 결국 1차 100명, 2차 200명으로 조정하여 진행했었는데 4주간 체험을 수료한 청년들은 대부분 “좋은 기회 감사합니다. 유용하고 실용적인 이런 작은 정책들을 통해 삶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들 프로그램이 생겨서 참여할 수 있어서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참여 이벤트 많이 해 주세요. 좋은 기회였습니다.” 심지어는 “누가 자신의 소비에 관심을 가지고 멘토해 주시는 건 새롭고 자극이 되는 경험이었습니다.”라는 청년들의 생생한 소감을 남겨주었었다. 지금까지 많은 정책과 연구들이 청년들의 일자리문제에만 주로 초점을 맞추었고, 연애 · 결혼 · 출산 등 기성세대의 관심사에 집중된 측면이 있었지만 직장관리, 돈 관리, 주거독립, 연애 · 결혼등 사소해 보이고 개인적인 측면의 문제로 여겨지는 것들일지라도 현시점의 청년들에게 어울리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지원되어야 한다. 연구과정에서 청년들은 성장하려하고 사회로부터 도움을 기꺼이 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

둘째, 청년들은 영수증을 모으고 가계부 작성에 대해 실용적인 방법을 찾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처음 영수증을 모으고 지출을 기록하는 미션에서 “신용카드(체크)나 자동이체 등 거래내역이 기록되는 전자상거래상황에서 굳이 관리가 불편한 종이영수증을 받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자동이체 된 내역이 훨씬 많았고 항상 인터넷으로만 구매하니까 영수증에 대해 소홀했다. 또한 영수증 받기 습관이 안 되어 소액영수증을 버려달라고 했었다.”라고 부정적으로 소감을 표현했다. 이러한 체험미션에 대해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영수증을 단지 거래내역과 금액이 표기된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3주차 4주차 지출에 대한 평가와 지출성격을 진단하는 과정에서는 매우 만족한 감정을 나타냈다. 청년들은 “지출기록을

꼼꼼히 하는 것부터 지출내역을 통해 지출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필요 없는 지출을 파악하고, 지출내용을 한 번 더 보게 되거나 어떤 부분에서 지출이 많았다는 등 객관적으로 자신의 지출을 파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소액영수증을 두 번이나 못 챙겨서 아쉬웠고, 영수증 없이 쓰는 돈이 많으니 돈 쓰는 자각을 덜하게 됨을 알게 되었고 영수증에 대한 신선한 느낌과 긍정적인 생각을 발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체험을 통해서 단순히 수입지출을 기록하는 가계부가 아닌 지출의 만족도와 중요도를 평가하는 새로운 가계부가 좋고 필요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평소 가계부를 이용하지만 새로운 방법이 너무 의미 있고 좋다. 가계부를 작성하면서 소비패턴을 알았다. 평소 가계부를 이용하지만 새로운 방법이 너무 의미 있고 좋았다. 만족도나 중요도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데 가계부 작성 느낌이 다르다.”고 최대한 자세하고 생생한 느낌을 전달해주고픈 이야기로 소감을 말하고 있었다. IMF이후 신용카드 등 모바일결제 수단이 증가하면서 이런 환경에서 성장해온 청년세대들은 영수증과 가계부에 대한 경험이 기성세대와는 현저히 다르다. 돈을 자기주도적으로 신중하게 사용해야한다는 당위론적인 가치의 인식여부로 돈을 잘 사용하기에는 쉽지 않다.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가 필요하다. 돈사용에는 환경과 구매자의 복합적인 심리가 결합되기 때문이다. 연구과정에서 청년들이 돈을 신중하고 만족스럽게 사용하는 데에 부족함을 알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과거 부모세대의 경험을 전달하기에도 한계가 있고, 현재 모바일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갖가지 가계부 앱은 적합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성세대의 신중한 돈 관리 경험과 모바일세대의 편리한 돈 관리 도구가 융합된 실용적인 방법을 개발하여 청년에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연구과정에서 새롭게 제시된 가계부작성방식은 의미가 있었고 향후에도 더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자기성찰, 즉 자기를 알고 싶어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지출체험과정에서 어떤 지출에서 만족이 좋았는지 어디서 지출충동을 억누를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었고, 지출을 알고 정리하게 되니 불필요한 지출이 적어져서 너무 행복했고, 지출에 대한 개념도 잡히고, 지출

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생각 할 수 있게 되는 등 '돈을 쓰고 있는 나'를 통해서 명확하게 자기를 분석하고 성찰하게 되었다. 소비에 대한 만족감이 어느 정도였는지 되돌아보거나, 만족도 체크하면서 소비당시 기분을 다시 떠올려볼 수 있었다." 는 정도로 안정적이고 여유 있는 소비자로서 자신감이 있는 모습을 표현했다. 이번 연구의 주요변인이 "자기성찰형 지출관리"이다. 일정금액의 돈을 무상으로 공급해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지속적인 자립생활이다. 일시에 돈을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의 자산이 증가되겠지만 일시에 소진되는 것은 정책입안자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러한 결과를 방지하고 자립적인 경제생활 토대를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할 것인가이다. 청년들은 더 많은 성장이 필요한 세대이면서도 개인과 가정에 대한 자립과 경제적인 책임까지도 요구되는 계층이다.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것은 부모나 선생님 등 누구보다도 청년자신이 바라는 일이며, 먼저 자기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연구과정에서는 자기성찰의 과정으로 돈을 소재로 하고 지출관리를 방법으로 채택한 것이다. 돈은 누구에게나 소중하고 귀하지만 한정되어있어서 돈을 벌고 사용하는데 자기의 모습이 많이 투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돈을 지출하는 행위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는 체험은 일상적이어서 어렵지도 않고 객관적인 기준에 맞출 필요도 없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작동되는 프로그램이다. 이 부분 또한 적극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2) 조직적 · 정책적인 측면

연구 참여자들은 자기성찰형 지출관리를 통해 자기개념을 명료화하고 지출에 대한 자기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결국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개인적인 성과와 더불어 정책기관과 실행기관 담당자들의 사회복지적 역할과 실천방향에도 논의를 확장하게 된 성과를 도출하였다. 자기성찰형 지출관리에 대한 조직적 · 정책적 측면에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들은 공동체에 대한 참여와 감사의 태도가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지출체험에서 부수적으로 경제지식이나 돈사용에 대한 개념을 공부

한 것 이상으로 누가 내 소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멘토해 주신 것을 새롭고 자극이 된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이런 프로그램이 생겨서 참여할 수 있어서 뜻깊은 경험을 하고 좋았다" 는 등 나의 행복이 사회적인 도움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도 경험하게 되었다. 적지 않은 청년들이 학자금대출 상환, 과도한 주거비 및 생활비용에 고통 받고 있는 경제적 압박 상태이다. 연구과정에서 청년들은 이러한 사회적지원에 대해 감사함을 알고 있고 더욱 적극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려 하고 있다. 또는 이런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년들과 함께하는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자산형성지원사업과 함께 청년들의 특성에 부합한 프로그램개발과 적용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에서 자산형성, 자산지원, 자산관리 등의 금융기술이 폭넓게 전달되어져야 한다. 기존의 대부분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모델은 일정한 대상을 선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일정조건을 마련한다. 일정한 조건이란 보통 저축을 연체하지 않는다거나 근로조건을 유지한다거나 후속프로그램인 금융교육을 이수해야한다는 것이다. 자산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감 미래에 대한 긍정성확대 등 가족 간 정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것은 선행연구에서 모두 밝혀진 사실이다. 다만 후속과정으로 진행되는 실용적인 금융기술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장동호는 "금융사회복지를 실행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현장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금융이나 경제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가 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빈곤층과 저소득층과 같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가정경제나 금융문제에 가장 자주 개입하는 전문가 집단이지만, 스스로 가정경제나 금융에 대한 이해도나 전문성이 높다고 말하는 사회복지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라고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있다. 하지만 "제한된 경험이지만 2013년 이후 가계금융역량강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금융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충청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의해 최초로 수행된 이 사업은 가정경제 교

육, 재무 및 채무상담, 금융멘토링과 코칭, 금융사례관리 및 금융사례관리 컨퍼런스, 단기 자산형성지원 등의 다채로운 사업으로 구성되어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 최근에는 전남광역자활센터의 사업으로 도입되고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사업평가에서 대표적인 것은 클라이언트의 재무나 부채문제에 회피했었던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자신감 있게 접근하고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한다. 장동호가 진단한 금융사회복지의 최근 경험을 바탕으로 자산형성지원과 함께 지속적인 자산관리기술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후속관리프로그램으로 금융사회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정책기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돈을 지출하는 일과 지출과정을 성찰함으로써 우리는 자기개념을 명료화할 수 있는가? 자기성찰의 과정으로 적합한가? 라는 다소 인문철학적인 개념으로 돈에 대한 접근과 사회복지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연구자는 일본의 금융교육전문가인 이즈미 마사토[55]의 “돈은 그 사람 자체를 비춘다”는 말의 의미를 현장에서 대면하고 있는 듯하였다. 거의 모두에게 돈은 소중하고 귀한 물건일 것이다. 귀하고 소중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돈속에는 각자의 마음이 들어있다. “교환할 수 있고 가치를 측정하고 저장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돈이다.”라는 단순한 설명 이상으로 돈은 우리의 삶속에 깊이 관계하고 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무쌍한 돈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지출되는 돈을 파악하는 것은 내 마음을 보는 것이다’라는 가설을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사회적인 기준에서도 돈이 부족해서 삶이 취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과 함께 연구자는 ‘지출파악하기’를 4주간동안

55) 일본 금융 교육 전문가로 일본 파이낸셜 아카데미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저서로는 『돈의 교양』, 『금전 지성』, 『부자의 그릇』 등이 있다.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첫째, 자기성찰형 지출관리는 참여자들의 자기개념 명료화와 지출관리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지출일지를 작성하는 동안 “잘못된 소비의 원인을 밝히고 올바른 소비를 통해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나에게 다양한 소비유형이 있었고 어떻게 해야 절제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었고, 이렇게 정리해보니 나는 충동끝판 왕이었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객관적인 나를 알게 되는 좋은 시간 이었다” 와 같은 지출일지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자기개념을 명료화하는 자기성찰이 있었음을 이야기를 통해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지출에 대한 평가과정에서 “지출만족도를 체크하면서 소비당시 기분을 다시 떠올려 볼 수 있었고, 소비에 대한 만족감이 어느 정도였는지 되돌아보았고, 필요한 곳에만 돈을 써서 뿌듯했고, 소비생활에 대해 알게 되고 쓸데없는 소비에 반성하는 유익한 경험이었다. 헛된 소비에는 망설이고 반성할 줄 아는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는 오늘 현명한 소비하러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지출평가를 통해 ‘지출하는 나’ 를 알아가는 과정이 지출관리뿐 아니라 일상생활 전체에 대한 자신감으로 확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자기성찰형 지출관리는 참여자들의 자기주도적인 돈 관리역량이 강화됨으로서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사회복지적 성과를 촉진시킬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생각하고 구매하는 습관이 생겼고,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어서 쓸 때마다 생각하고 지출한다. 계획적이고 신중하게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려고 마음먹었고, 그냥 했던 지출이 생각하는 지출로 바뀌었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 소비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유용하고 실용적인 이런 작은 정책들을 통해 삶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참여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계획 있는 지출관리와 향후 성공적인 자산관리의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었고, 특히 “누가 내 소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멘토해 주신 것을 새롭고 자극이 된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이런 프로그램이 생겨서 참여할 수 있어서 뜻깊은 경험을 하고 좋았다” 는 등 나의 행복이 사회적인 도움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속

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라는 사회복지적 의미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을 느껴볼 수 있다.

2) 시사점 및 한계

금융과 사회복지가 돈이 필요한 저소득·빈곤 자산층의 입장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듯이, 자기성찰형 지출관리는 다양한 기관에서 실행하고 있는 각종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효과성제고를 위해 금전적 지원과 함께 후속관리방법에 대한 다양한 경험적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안정된 가정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담당자들에게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수혜자들이 지출관리에서 부딪히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는 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체적인 시사점을 줄 것이다.

첫째, 자기성찰형 지출관리는 돈 지출하기를 통해서 소득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자기주도적이고 자립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소득의 크기와 자산의 양은 사람마다 가정마다 다르기에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무한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자기기준에서 만족점을 찾으려하는 것도 사실이다. 돈 속에 연결된 자신의 모습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돈을 취득하려는 다양한 노력과 생활의 범위를 결정하는 계획과 실행의 기초를 제공해 줄 것이다.

둘째, 자기성찰형 지출관리는 금융사회복지 실천기술이다. 저소득층의 자산빈곤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 심리사회적인 여러 문제들을 대응할 수 있는 힘과 여유를 줄 수 있도록 자산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형성된 자산을 목적에 맞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자산사용이 필요한 곳은 무엇인가? 얼마의 자산을 배분해야 적정한가? 자산을 활용한다는 의미는 자산을 다른 재화와 서비스로 교환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자기성찰형 지출관리에서 자기개념과 소비자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들은 자산(소득)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기초금융역량이다.

셋째, 자기성찰형 지출관리는 지속적인 소득활동관리를 통해 스스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술이다. 소득은 유동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자산의 한 모습이다. 시간의 흐름상 지속되는 소득으로 우리는 일상에 필요한 소비

지출을 하고 미래의 소비를 위한 자산으로 축적하기도 한다. 소득활동의 가장 중요한 점은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속적이기 위해서는 적성과 역량에 맞아야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자기성찰형 지출관리는 지출계획을 먼저 실행함으로써 필요한 소득의 크기를 예측할 수 있고 역량에 맞는 직업 선택의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넷째, 자기성찰형 지출관리는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에게 클라이언트에 대한 접근과 사례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사회복지사들은 어떤 직군의 전문가보다도 저소득층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접근이 훌륭하다. 사회복지사만큼 저소득층을 편견없는 자세로 대하고 이들의 상처를 잘 위로할 수 있는 전문가도 없을 것이다. 다만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사회복지사들은 금융이나 경제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사가 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연간 보수교육과정에서도 간단하게 습득할 수 있는 자기성찰형 지출관리와 같은 일상생활 밀착형 돈 관리프로그램은 특히 저소득층의 가정경제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개선방향에 대하여 클라이언트와 상호 협의가 가능하게 할 것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지식과 기술이 부채발생을 최소화하거나 교육이나 상담 그리고 자산형성 등을 지원할 경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한계점은 우선, “자기성찰형 지출관리” 전체 2단계 중 1단계만을 실행했다는 점이다. 연구 참여자들이 1단계에서 확보한 자기개념 명료화와 소비자자신감을 통해 2단계 지출계획하기를 실행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상황이나, “자기성찰형 지출관리”는 향후 2단계 지출계획하기를 실행함으로써 완성될 것이다. 1단계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지출파악하기 과정을 통해 자기의 모습을 성찰하고 자기개념을 명료화 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진정한 기쁨이 있는 소비지출을 알게 되었고 계획적인 지출관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만으로도 청년들의 자립적 경제생활을 위하여 매우 유용한 돈 관리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다른 한계점은 “자기성찰형 지출관리”프로그램을 청년층을 상대로

만 실행했다는 점이다. 기초수급가구, 차상위가구, 자활근로자, 아동, 중등장애인, 심지어 새터민(탈북주민)을 위한 자산통장까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온라인 활용에 다소 서투른 계층도 있을 수 있고, 타인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지출관리를 코칭을 받는 것을 더 불편해 하는 계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기성찰형 지출관리는 자산빈곤계층이나 심지어 여유계층에게도 돈의 움직임을 통해서 자기와 가족의 욕구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필요한 새로운 방식의 돈 관리기술로서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김경일, 『지혜의 심리학』, 서울: 진성북스, 2017.

김난도 외 7인, 『트렌드 코리아 2018』, 서울: 미래의 창, 2017.

김문태,『소비자행동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청람, 2015.

김형재 · 이준관, 『소비자행동론』, 서울: 박영사, 2017.

라선아, 『행복한 소비자』, 서울: 지식의 날개, 2017.

박성희,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원미사, 2005.

서은국, 『행복의 기원』, 서울: 21세기북스, 2014.

석영중, 『도스토예프스키, 돈을 위해 펜을 들다』, 서울: 예담, 2008.

설혜심, 『소비의 역사』, 서울: 휴머니스트, 2018.

송인섭, 『인간의 자아개념 탐구』, 서울: 학지사, 1989.

장순옥, 『소비의 경제학』, 서울: 책이 있는 마을, 2010.

다비트 보스하르트, 『소비의 미래』, 박종대(역), 서울: 생각의 나무, 2001.

로버트 보콕, 『소비: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양건열(역), 서울: 시공사, 2003.

쓰지 신이치, 『행복의 경제학』, 장석진(역), 서울: 서해문집, 2009.

아비지트 배너지 · 에스테르 뒤플로,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 서울: 생각연구소, 2012.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조현욱(역), 서울: 김영사, 2015.

이즈미 마사토,『돈의 교양』, 김정환(역), 서울: 랜덤하우스코리아, 2009.

제임스퍼거슨, 『분배정치의 시대』, 서울: 여문책, 2017.

제프리 밀러, 『스펜트』, 서울: 동녘사이언스, 2010.

클라우디아 해먼드, 『돈의 힘』, 도지영(역), 서울: 위너스 북, 2017.

히라카와 가쓰미, 『소비를 그만두다』, 정문주(역), 서울: 더숲, 2015.

김대훈, “교사학습공동체 참여를 통한 지리교사 전문성 발달 -근거이론적 접근-”,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김동호, “소비성향 측정도구의 개발연구: 서울시 여성의 소비성향 측정과 분석”,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1996.

김민정, “청소년의 상징적 소비성향과 충동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김정규, “자기심리학과 게슈탈트 심리치료의 대화”, 『한국심리학회지:임상』(1998), 17(1), 17-38.

김지윤 · 이동귀,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 검정”, 『상담학연구』(2013), 14(1), 63-82.

노고은,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인터넷 과다사용의 관계: 자기개념 명료성과 사회불안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박경아, “자활사례관리 운영과정 연구 -경기도 자활사례관리시범사업 운영기관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박미숙, “문화멘토링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사회적 실천과정에 관한 근거이론적 연구”, 인하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손지연, “저소득층 소비자의 재무역량 향상 방안: 자산형성 지원정책을 중심으로”,『월간소비자정책동향』(2014), 55: 1-20.

장동호, “금융사회복지의 개념과 배경”, 『제1회 금융사회복지컨퍼런스』(2018), 5~15.

원수라, “중학생의 자기성찰 태도 향상을 위한 뇌교육 실행연구”,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이경란, “저소득층 자산형성사업이 참여자의 금융태도에 미치는 영 향 에 관한 연구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이성수 · 송유진, “구매 시 지각된 위험과 정보탐색에 대한 소비자 자신감과 인지적 종결욕구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2009), 10(4), 723~736.

이신애, “라이프스타일 소비자자신감이 소비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구 조 분석”,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이준득 · 서수균 · 이훈진, “내현적 ·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자기개념 명료성과 부정적 정서 특성”, 『한국심리학회지:임상』(2007), 26(2), 463-477.

이형종, “급여생활자의 은퇴설계 경험에 관한 근거이론 접근”, 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정유림, “20-30대 여성의 핸드백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쇼핑성향, 구매동기, 정보원활용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조수철, “대인관계에 있어서 성찰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 『소아·청소년 정신의학』(2000), 11(2), 179-185.

한송이, “최저임금제도와 소득주도성장론”,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Atkins, S., & Murphy, K. (1993). Reflec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8, 1188-1192.

Bearden, William O., David M. Hardesty, and Randall L.Rose(2001), 'Consumer Self-Confidence: Refinements in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8(June), 121-134.

Campbell, J. D., Assanand, S., & Paula, A. D. (2003). The structure of the self-concept and its relation to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71(1), 115-140.

Campbell, J. D., Trapnell, P. D., Heine, S. J., Katz, I. M., Lavallee, L.F., & Lehman, D. R. (1996). Self-concept clarity: Measurement, personality correlates, and cultural bounda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1), 141.

Creswell, J. W. (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London: Sage.

Dewey, J.(1938). Experience and Education. : *The Later Works*. Vol.13. *Carbondale and Edwardsvil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엄태동 역 , 『경험과 교육』, 서울: 원미사, 2001.

Glaser, G. and Strauss, A.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Aldine Publishing Company, Chicago.

Glaser, B. G.(1992). *Basics of Grounded Analysis: Emergence vs. Forcing,* Sociology Press.

Holt. D. B.(1995). How Consumer Consume: A Typology of Consumption Practices.*JournalofConsumerResearch.*

Neufeldt, S.A., Karno, M. P., & Nelson, M. L.(1996). A Qualitative study of expert's condeptualization of supervisee reflectiv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48(3), 301-309.

Kathy Charmaz, 박현선·이상균·이채원 공역, 『근거이론의 구성: 질적 분석의 실천지침』, 서울: 학지사, 2013.

Sherraden, M. S. 2010. "Financial capability: What is it and how can it be created".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Working Papers.* 10-17.

Sherraden, M. 2008. "IDAs and asset-building policy: lessons and directions". *Working paper.* 08-12.

Sherraden, M.S., Frey, J. J. and Birkenmaier, J. 2016. Financial Social Work. In J.J. Xiao (ed), Handbook of Consumer Finance Research(pp.115-127), New Work: Springer

Strauss, A., & Corbin, J., 김수지·신경림 역, 『근거이론의 이해: 간호학의 질적 연구 수행을 위한 방법론』,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6.

Strauss, A., and Corbin, J. (1998).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 Thousand Oaks, CA, US: Sage Publications.

Stopa, L., Brown, M. A., Luke, M. A., & Hirsch, C. R. (2010).

Constructing a self: The role of self-structure and self-certainty in social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8(10), 955-965.

<신문기사>

아시아경제, “20~30대 10명중 4명 "나는 삼포세대"”, 2012년 2월 1일.

한겨레, “이른바 '삼포세대'의 절망과 박탈당하는 그들의 미래”. 2011년 5월 13일.

<인터넷 문헌>

http://www.welfare.seoul.kr/business/hope/about/hope

https://account.jobaba.net/main/main.do

https://www.consumerfinance.gov/

ABSTRACT

A Study on Social Welfare Effects of the Asset Building Support Project for Low Income Groups: A Case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Self-Reflection Type Expenditure Management"

Oh, Do-Sun

Department of earth management, Major in Social Welfare, 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Until the advent of the 21st century, occupations and earned income have been effective in the market economy as a ladder of poverty escape, but the relative income and assets of working people have been shrinking gradually as capital income has risen faster than earned income globally. This can be understood as the fact that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alone can not solve the problem of poverty of individuals and families. In this situation, the asset formation support project is a financial - based social welfare program that increases assets in a short period of time by adding a matching amount to the savings amount for low - income workers who have earned income but lack of economic stability and room for future. In Korea, it has

been implemented variously since Seoul City the Bank book business in 200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elf-reflective expenditure management programs on low-income earning asset formation support programs in order to maintain the working status of passbook participants and to improve self-determination of money needed to effectively use the assets formed after three years. For this research purpose, we selected 59 volunteers who participated in the online expenditure management experience program, "receipt of a great young man" (October, 2017) as a participant in a young man's Bank book in Gyeonggi Province. The story of participants expressed in the experience of 4 week expenditure grasp was collected as a source of this research.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pen coding was performed on raw data. As a result, a total of 16 categories such as receipt viewing, expenditure grasp, expenditure control, consumption pattern, self - reflection were derived. These 16 categories represent various attitudes, such as negative or positive, reflective, planned, or hopeful, for the spending of research participants. As a result of analyzing through axis coding work, it was possible to set the category of "expenditure grasp" as a central phenomenon. In the process of grasping expenditure, the researchers experienced four steps of ignore phase, acceptance phase, execution phase and searching phas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selection coding, the core category was "the process of knowing the consumption spending with genuine joy through grasping self - reflective spending".

The study participants were self-reflective of clarifying their self-concept in the process of recording systematic 4-week expenditure capture program. In the process of recording expenditure log,

self-reflection was found. Second, the process of knowing ' It was confirmed that it spread not only in management but also in self - confidence of the whole daily life. Thirdly, this consumer confidence of participants can predict the planned expenditure management and the possibility of successful asset management in the future. In appreciation of these welfare system and programs, the participants could empathy for the meaning of social welfare - care and consideration of the socially privileg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financial support and various empirical data on follow - up management method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various asset formation support projects implemented by various organizations. It will also help low income-workers in asset formation support projects understand the various types of problems that will be encountered in asset management and the various actions to resolve them. It will also provide meaningful social welfare implications for individual and policy support to support a stable household economy in the low - income bracket.

Key words: the Self-Reflection Type Expenditure Management", self-concept clarity, consumer confidence, grounded theory